

1 도시공간,
공공영역,
문화경험의 양극화로부터
예술의 공공성을 점검하기

인터뷰

심소미(심) · 무진형제(무)

무 2020년에 무진형제는 참여형 공공미술 작업을 기획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인원이 한 공간에 모여 재료를 공유하며 함께 하는 작업 방식 자체가 팬데믹 속에서 허락되지 않았 습니다. 모든 것이 보류되고 미뤄진 상황에서 작가의 위치, 작업의 형태, 참가자들과의 관계 등 공공미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분명 이 플랫폼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것 같고, 그래서 바뀌어야 할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은 코로나 이후 미술계의 어떤 변화에 주목하고 계신가요.

십 일상의 많은 부분이 코로나19로 중단되고, 새로운 사회적 규범에 적응해 나가야만 했던 한 해를 보냈습니다. 사회적 위기 속에서 문화예술도 침체기를 겪었습니다. 예술인들 또한 전시와 활동이 중단, 지연, 취소되면서 각자도생하듯 활동을 찾아나서야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2020년은 어느 때보다도 예술가들이 각종 문화재단의 지원과 기금에 많은 관심을 둔 해였네요. 저희가 사전 미팅 때 얘기 나누기도 했지만, 사회가 마비된 상황에서 공적 기금에 의존해야 하는 예술계는 스타트업 업계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매번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경쟁력, 그리고 시의성 있는 공모안으로 선정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예술가가 제대로 작업을 보여주지 못한 채 지원서 작성으로 상당 시간을 컴퓨터 앞에서 시름했고, 민간의 활동이나 독립적인 프로젝트의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미술계 전반의 공공기금 의존도가 커졌습니다. 그만큼 예술인 모두에게 힘들고 어려운 해였습니다.

공공미술은 공공의 영역에 있기에 방역정책과 새로운 사회적 규범에 더 엄격하게 반응해야 했습니다. 주로 공적기금 하에 추진되기에 코로나19의 위기에 불구하고 기한 내 프로젝트를 종료해야 하는 압박감이 예술가들에게 큰 상황이었습니다. 예술가가 위기에 대해 공공미술로 반응할 충분한 여유도 없이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고, 장소가 폐쇄되었으며, 현실적으로 경험을 공유하기 어려운 상황 등에 처했죠. 이러한 고민들을 공공과 함께 고민하면서 대안적인 소통의 창구를 찾아야 하는데, 막상 그럴 만한 시간과 여유가 없었죠. 결국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해서 어쩔 수 없이 최소한으로 접촉 가능한 상황에서 진행하거나, 온라인으로 작업을 업로드하는 식이 반복되었습니다. 이 구조에서 당연히 공공은 점점 더 배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팬데믹 속에서 예술이 공유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을 논의하며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이부터가 위기인 거죠. 이전에 월간지 『퍼블릭아트』에 쓴 원고에서 소개한 적이 있는 한 사례를 들고자 합니다.¹⁾ 영국의 사우스뱅크센터에서 지역주민과의 커뮤니티 아트로 시작한 <Art by Post>²⁾입니다. 우편으로 전달하는 예술이라는 다소 똥판지같은 이 프로젝트의 등장은 꽤나 의미심장합니다. 디지털과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문화예술로부터 소외되는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1) 심소미, 「언택트의 시대, 스마트 시티에서의 예술과 공공성」, 『퍼블릭아트』, 2020년 4월호 참조.

2) 사우스뱅크센터의 <Art by Post>는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www.southbankcentre.co.uk/artbypost>

위해, 방법론적으로 우편물이라는 아날로그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우편봉투 안에 드로잉 작업, 사진 및 시인이 쓴 시 등을 보내 관객과 교감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처럼 아날로그로 교신하는 프로젝트는 작년에 국내에도 다수 등장했습니다. 공공미술이나 작가들의 작업뿐만 아니라 국공립미술관과 기초문화재단의 참여형 프로젝트 등 여러 곳에서 우편 프로젝트가 등장했죠. 아쉬운 점은 다수의 프로젝트가 아날로그 참여를 SNS로 홍보하거나,(결국 SNS로 연결된 미술계라는 동일 커뮤니티 안에서의 홍보라 할 수 있겠지요.) 웹사이트를 통해 시민의 참여를 독려하는 식이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문화의 사각지대와 문화적 단절과 소외라는 현상을 파고들어 교류를 도모하거나, 미술계 내부로 함몰된 순환의 경로에서 벗어나는 교류의 형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무 무진형제에게 공공(公共)의 의미는 참여자들이 함께 모여 공공미술을 수행하는 공간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자유롭게 이용하던 공공공간이 폐쇄되거나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공공의 영역이 닫힌 상황에서 자가격리와 재택근무는 사람들을 더 넓고 쾌적한 사적 공간에 몰입하게 합니다. 제한된 공공공간과 고립된 유토피아를 꿈꾸는 사적 영역 사이에서 코로나 이후의 공공영역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사유해야 할까요.

심 제가 현재 머물고 있는 프랑스의 상황을 예로 들어보고자 합니다. 이곳에서는 2020년 1차 봉쇄령(3월-4월)에 이어 2차 봉쇄령(11월-12월)으로, 3개월 이상 전 국민의 이동이 통제되었습니다. 국공립 미술관 및 박물관을 비롯한 모든 문화시설이 6개월간 문이 닫혔습니다. ‘필수적인 활동’이란 규정이 생계에 필수적인 영역에만 해당되어, 문화활동과 관련 공간의 운영이 모두 중단된 상황입니다. 더불어 공공미술은 공적 영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면 중단되거나 취소 혹은 연기된 상황이에요. 한국에서도 방역정책에 따라 국공립 문화공간부터 전면 섰다운 되었죠. 반면, 대형 쇼핑몰과 백화점 등 상업공간은 방역정책에 별 영향 없이 개장한 상태입니다. 방역정책이 엄격한 한국에서도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쇼핑몰, 백화점, 각종 상업공간에 대한 규제는 크지 않습니다. 문화공간이 전면 닫힌 상황이지만, 상대적으로 쇼핑몰은 매 주말마다 방문객들로 북적거립니다. 2020년 11월 28일, 봉쇄령이 완화된 날의 경험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봉쇄령이 1km에서 20km로 한 달 만에 완화된 날이었습니다. 도시를 활보하는 자유가 그때만큼 크게 느껴진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방문이 금지되어 있던 공공영역을 관통해 에펠타워를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거의 사람이 없었어요. 인근 광장도 텅 비어있었고요. 제 추측이 틀렸던



봉쇄령 완화 조치 후 백화점 앞 긴 줄, 파리 르봉 마르셰, 2020년 11월 28일

거죠. 이동의 자유를 만끽하고자 하는 사람들로 북적일 줄 알았거든요. 그렇다면 이날 사람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요? 돌아오는 길에 에펠타워에서 머지않은 쇼핑지구에서 엄청난 인파의 사람들을 마주했습니다. 백화점 앞에서는 놀이동산처럼 긴 줄이 늘어서고, 사람들의 쇼핑 행렬이 이어졌어요. 장바구니 대신 고급 쇼핑백을 든 사람들의 표정에는 즐거움이 느껴졌죠. 사람들에게 문화공간은 허용되지 않은 공간이기에 접근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물리적 공간에서의 예술은 이렇게 시대의 위기 속에서 점차 소거되어 가는 듯해요. 비물질의 형태로 정신과 감성, 사고의 교환을 이끌어 냈던 예술은 사람들의 일상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류와 소통을 하려면 이제 쇼핑장소에 가야 합니다. 상품의 교환이 없는 공공영역 또한 자연스럽게 잊혀져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텅 빈 상태로 말이에요. 공공미술은 오늘날 공공영역이 사용되고 있는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고, 또 다른 가능성을 모색하는 실험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무 공공미술을 하며 가장 힘든 순간이 행정기관 방문이었습니다. 장소 허가와 참여자 모집을 위해 공공기관에 의지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퇴짜부터 놓으니까요. 선생님은 기획자로서 지원금 심사와 정책 자문 등에 참여해 작가들과는 좀 다른 행정 경험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때의 경험담과 함께 공공미술 행정시스템 전반에서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십 한국의 공공미술은 공공기관의 주도하에 정책과 제도 마련이 시작됐고, 현재는 대다수의 기초문화재단과 지자체마다 마련돼 있습니다. 기존의 커뮤니티 중심 활동에 더해 최근에는 동시대 미술 동향을 반영하듯 지역 아카이브, 공공미술 연구 및 리서치 프로젝트도 생겨나고 있어요. 이렇듯 주로 공적 예산으로부터 공공미술이 시작되기에 민간-예술가-기관 사이의 이해관계에서 오는 차이와 갈등 또한 큰 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자문이나 심사 과정에서부터 일어납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앞서 지자체, 예술가, 공무원, 주민 모두 공공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프로젝트가 추진되다 보니 불협화음은 당연하다 생각돼요. 대개 심사 후 선정 팀에게 지역주민과의 합의를 통해 진행하게끔 권고하지만, 막상 심사 후 예술가의 상황은 프로젝트를 기한 내에 성사시키기에도 바쁜 편입니다. 프로젝트를 완수해야 하는 촉박한 기간과 행정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데, 이에 앞서는 갈등의 골 앞에서 지체할 시간이 예술가에게 별로 없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의 몰이해에서 비롯한 문제들을 논의하며 과정을 찾아 나서기보다, 사람들이 무난하게 참여할 수 있는 단순 참여형 프로젝트들로 구성이 됩니다.

더불어 지원자뿐만 아니라 심사위원도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심의가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장소 특정적 프로젝트는 서류의 정보만으로 그 장소의 사회문화적 특징과 지역사회의 현실에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소 번거로워도 경우에 따라 공공미술의 사이트를 답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지원하는 예술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소 답사 없이 인터넷 검색으로만 접근한 제안서, 비슷한 프로젝트를 장소만 바꿔 제출한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심사를 서류와 인터뷰로만 하기보다, 심의 과정 전에 지원자들이 소통하고 조사 가능한 프로세스 마련이 필요합니다. 지원자들이 사전에 프로젝트 대상지와 지역공동체와 소통할 수 있는 자리뿐만 아니라, 지역에 대한 자료도 공유되어야 하고요, 도모하고자 하는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자리도 함께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 없이 진행된 졸속 행정의 결과가 바로 2017년에 큰 논란이 된 <슈스트리>입니다. 작가, 공공기관, 시민, 미술계가 각기 다른 입장을 갖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목소리를 논의할 공론화의 자리는 이후에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니다. 문제가 생기면 이를 논쟁적으로 논의하기보다 뿌리를 뽑아버리는 한국사회의 관행이 공공성에 대한 담론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무 공공미술을 할수록 참여자들과의 관계에 대한 생각이 많아집니다. 이번 리서치 사업을 하며 여러 선생님께 비슷한 고민을 전했는데요. 요즘 같은 때 참여자들과의 깊은 연대가 어떻게 가능하냐는 의견이 인상 깊었습니다. 도시의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이야기와 이미지를 수집하는 저희의 공공미술은 어느 한 지역만을 기반으로 하지 않습니다. 무진형제의 공공미술은 작가 자신의 탐구와 사유의 폭을 넓히기 위한 목적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최근 작업을 구상하며 참여자들과의 관계에 있어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될 때 선생님께 공공미술에서 작가와 참여자의 관계와 연대감 등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심 관계라는 것이 가까운 사이에서도 참으로 어려운데, 공공미술에서 연대감을 이끌어내는 것은 어려운 과업과 같이 다가옵니다. 제가 2016년에 기획한 <마이크로시티랩>에 참여한 베이징 건축가 팀 피플즈 아키텍처 오피스(People's Architecture Office)가 미술계의 모순적인 소통구조에 비평적으로 개입한 적이 있어요. 당시 서울의 도시개입 프로젝트를 기획하면서 건축가 팀에게 공장지대에 있던 전시장인 양평동의 한 공장건물로의 건축적 개입을 부탁했어요.

건축가 팀은 영세한 소형 공장마다 창문 밖으로 나온 파이프 구조를 차용해, 전시장 내부의 창에서 외부로 도출되는 거대한 파이프를 제작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면, 공장의 파이프 구조가 창문 밖으로 흘러내려오는 스펙터클한 건축 설치로 다가옵니다. 사실 이 작업의 핵심은 전시 개막식 당일 건축가 팀이 제안한 ‘오프닝 바베큐 퍼포먼스’에 담겨 있어요. 이들이 거리에서 자신들이 만든 파이프 바로 밑에서 삼겹살을 굽자, 연기가 파이프를 타고 전시장으로 흘러들어 갑니다. 삼겹살이 구워질수록 거리에는 사람들이 모이고, 반면 전시장에는 연기가 가득 차 내부 관람객들의 항의가 쏟아졌어요. 파이프 설치의 핵심은 사실 도시와 경계를 둔 전시장의 내부 질서를 교란시키는 거였죠. 거리에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전시장에서 개막식을 하며 웅기종기 모여 있던 미술계 일원을 향한 개입이었습니다. 건축가 팀은 도시와 전시 장소를 연결하는 파이프라는 장치를 통해 서로의 경계로부터 거리로 나오길 요청했던 겁니다.

이 작업은 기획자-작가-관객-시민 사이의 관계망을 하나의 해프닝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이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경계를 연기가 교란한 셈이죠. 제가 이때만큼 전시 현장에서 당황한 적이 없었어요. 동시에 그간 믿고 있던 관계 맺기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공공미술이 하나의 공공성을 도모해야 한다는 환상이 우리 사회에 크게 존재하는 것 같아요. 공공성에 대한 서로 간의 인식과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연대와 공공적 합의는 허상에 가까워 보입니다. 오히려 공공미술은 분리된 공공성, 혹은 흩어진 공공성을 인식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이를 교류하는 장으로서의 공공성을 도모해야 하지 않을까 해요.

무 대부분의 공공미술은 공공의 영역 안에서 여러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완성되었음에도 결국 작가의 이름으로 미술관에 전시됩니다. 공공미술 작업이 특정 장소나 미술관에 놓이게 됨과 동시에 작가의 소유가 되죠.(미술관에서 전시되는 공공미술 작품으로 한정하자면요.) 결국 미술이라는 거대한 장 안에서 공공미술 또한 전시를 위한 분야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가끔은 공공이란 말이 좀 무색할 때도 있습니다. 공공미술 작품은 어떤 방식으로 공유되어야 할까요. 생각해 보면 전시장이란 공간에서는 참여형 공공미술 작품조차 결국엔 참여자가 관람객이 되고 프로젝트를 이끈 작가가 작품의 저작권자가 되는 기이한 변이가 일어나거든요.

십 정말로 생각해 볼 지점이 많은 질문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러니하게도 공공미술이 관객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고 공공의 참여로부터 작업을 완성해 나가지만, 결국은 모두

작가의 작업으로 귀결됩니다. 공공이 작동할수록 작업이 스펙터클해지고 작가의 권위는 더 강화되어 갑니다. 공공미술 외 여러 동시대 미술에서 작가는 마치 건축가 혹은 영화감독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영화의 엔딩 크레딧을 연상시키네요. 영화제작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엑스트라와 기술 스텝에 걸쳐 다수 명시되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이름은 영화감독 한 명 뿐입니다. 건축스튜디오에서도 여러 건축가들이 함께 일을 하지만 최종적으로 그 작업은 그 스튜디오의 책임자인 건축가 한 명의 이름으로 남지요. 미술 작가의 작업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형태가 늘고 있고, 공동작업과 협업이 다양해지고 있지만 그 구상은 작가에서 출발했기에 결국에는 작가의 이름만이 마지막까지 남고요. 관객의 참여가 많을수록 작가의 이름은 더 스펙터클해져 갑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관객은 예술에 관심이 있어 공공미술에 참여하지만, 특정 작가의 생각과 실천의 방향성에 공감하기에 참여하기도 하죠. 동일한 계획의 작업이라도 어느 작가가 계획하느냐에 따라 공공미술의 과정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프로젝트가 종료되었을 때 작가의 저자성을 내려놓고 생각하기가 다소 어려운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주제이나, 이러한 고민을 하고 계신 작가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무진형제가 하시는 향후 작업에서 어찌면 대안적 형태가 등장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무 지금까지의 공공은 공공장소나 사물, 혹은 사람 간의 접촉을 통해 공공으로서의 의미 혹은 공유의 지점을 부여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로 갑자기 언택트 시대에 접어들며 사람들 간의 접촉이 줄고 공공의 장소와 사물의 공유는 급격히 축소되거나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조건 속에서 공공의 장소는 온라인으로 이전되는 듯합니다. 하지만 온라인상의 정보 공유는 한정돼 있고, 플랫폼 자체가 사기업 소유다 보니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온라인 수업마저 계층과 주거환경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고 하죠. 기업이 만든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은 각자의 경제력에 따른 서비스 이용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구글 포토마저 유료화 되는 상황에서 과연 온라인이 오프라인의 공공영역을 대체할 수 있을지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프라인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급격한 구조 변화에 의해 더욱 악화 되고 있는 현실을 돌이켜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최근에 더욱 빠르게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고 있는 4차 산업혁명과 언택트라는 말로 대변되는 현상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심 다양한 기술의 발전과 온라인화는 분명 현시대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던 관습과 생활양식을 지속하게 하는 대체 수단이 되어 가고 있어요. 경험이 중단된 세계에서, 우리가



집합금지 조치 하의 공공영역, 파리 기차역, 2020년 12월 25일

경험했던 많은 것들이 온라인으로 전환되었죠. 유튜브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광범위한 문화예술 채널이 되었습니다. 전시, 공연, 콘서트, 연극 등 모든 예술이 온라인 콘텐츠로 등장해 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온라인 환경의 대두는 우리에게 새로운 환경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실험을 촉구하기도 합니다. 플랫폼 기반 및 VR 기반 전시환경, 인터페이스 융합, 웹 환경 분석, 온라인에서의 전시경험과 공유방식 등에 대한 이슈들도 새로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활동을 보면 아직까지는 단순 예술 콘텐츠 마련, 인터뷰 영상, VR 촬영본 등 아카이브 형식이 대다수입니다. 다수가 온라인 플랫폼과 사용자에 대한 이해 없이, 임시방편의 콘텐츠 제작과 관객 없는 업로드에 분주한 편입니다. 이러한 온라인 콘텐츠는 전시, 공공미술, 인터뷰 등에서 방법론적인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자료를 업로드하고 관객들에게 보라는 식이 상당합니다. 온라인에서 공공성을 어떻게 도모해야 할지는 현시점에서 큰 숙제라 생각됩니다.

저는 온라인으로 몰리는 군중과 감각의 변화와 관련해 도시공간과 갖는 영향관계에 관심을 두고 살펴보고 있어요. 경험의 세계가 온라인으로 대체되어 가면서, 제일 먼저 도시 곳곳의 광고판의 풍경부터 바뀌었습니다. 관광, 쇼핑, 여행, 문화 등 시선을 사로잡던 광고 포스터 형식도 코로나19 이후로 바뀐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지하철 전광판에 가장 화려한 볼거리로 자리하던 대형 포스터들은 콘서트나 전시, 각종 영화나 여행 광고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로 모든 문화 활동과 단체 활동이 중지되면서 광고는 상업적인 활동이 중심이 됩니다. 물론 한국에서는 방역 수칙에 대한 광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반면, 프랑스에서는 방역 수칙 광고도 있지만, 최근 들어 넷플릭스 광고, 앱 광고, 송금 광고, 텔레비전 프로그램 홍보 광고가 부쩍 늘었습니다. 도시공간을 예로 들었지만, 이미 웹상에서는 이러한 광고들이 중심이 된 지 상당히 오래됐죠. 이러한 광고들은 현시점에서 우리 사회가 나아가는 방향을 암시해 보입니다. 자본은 사람들이 향하는 곳을 향해 광고로 더더욱 열띠게 선전하고 있어요.

문화 활동 또한 재빠르게 상품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공공성을 바탕으로 한 문화 경험은 모두 셋다운이나, 12월 중순 크리스티 파리 옥션에서 화제가 된 ‘모나리자를 혼자 보는 경험’처럼 고가(1억원 상당)로 경험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박물관에서 작품을 감상하는 경험이 옥션을 통해 고가의 상품이 된 세상이 도래한 거죠. 이렇게 문화예술의 새로운 상품화와 사적 점유 현상이 공공영역을 점령해 나가는 세상에서, 공공미술에 주어진 영역과 제도적 장치는 너무나 협소한 편입니다. 안타깝게도 문화적 경험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새로운 경험을 찾아서 대형 쇼핑몰과 상업공간을 찾아가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공공영역의 폐쇄와 중단은 매우 엄격한 편이지요. 이러한 규범의 세계 속에서 공공미술의 형식과

방법론이 더 협소해지는 듯해요. 공공성이라는 말에 주어진 사회적 인식과 규범이 작동하는 방식을 전환하고, 이를 확장해 나가는 것 또한 공공미술의 숙제 중 하나일 것입니다.

무 언택트 시대를 통한 공공미술의 지형도를 보며 시간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공공미술에 있어 장소와 사물의 공유가 다수의 참여로 동시적이었지만, 이제는 하나의 장소에서 동시적 효과를 발현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쪼갬 뒤 기술을 이용해 다시 모아 하나의 타임라인으로 엮어내기도 합니다.(Zoom을 통한 다수의 모임이 그 예입니다.) 세계 자체가 영상처럼 편집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몸에 새겨진 경험이 아니라 기록 자체에 남는 기록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이 경험을 어떻게 우리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을지 조금 난감합니다. 물리적 공간에서의 공통의 경험과 감각이 중심이 된 세계에서 살아왔으니까요.

심 언택트 시대의 접속은 시대적 위기 속에서 우리를 서로 연결되어 있게 합니다. 반면에 개인에게 연결의 강박관념을 초래하기도 하죠. 수년 전 마크 피셔(Mark Fisher)³⁾는 한 강연에서 인터넷 피드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실존적 위기에 대해 자신의 경험으로 언급한 적이 있어요. 건강 문제로 입원을 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그는 한편으로는 미뤄둔 집필 계획을 구체화하고자 다짐하지만, 결국에는 소셜 네트워크의 불안장애와 더불어 자신의 불안정 고용상태 즉, 프리카리아트로서의 염려와 우울에 빠져 제대로 집필하지 못하게 됩니다. 유명 블로거이자 트위터 유저로 알려진 그는 이러한 네트워크에서 벗어나 잠시라도 혼자 있을 수 없는 불안장애를 경험하며, 온라인 네트워크 속 심화된 인간의 정신적 위기에 대해 경고합니다. 더이상 혼자 남겨질 수 없는 상태, 즉 스크린을 터치하지 않고 하루를 보내기가 결코 쉽지 않은 동시대인의 조건은 파스칼이 『팡세』에서 수백 년 전 언급한 명제로서 ‘인간의 불행은 방안에 조용히 머물러 있을 줄 모른다.’는 문구를 상기시키기도 합니다. 과거보다 비관적인 것은 그 불안이 디지털 기술과 온라인 네트워크 속에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연결되어 있어야만 하는 새로운 강박이 한편으로는 우리의 정신을 불안하게 더 옥죄어 오는 것은 아닐까요. 연결될 수 없는 소외감, 공공이기에 앞서 개인으로서의 불안한 실존은 이제 언택트 사회와 뗄 수 없는 말일 것입니다.

무 오프라인상의 경험과 공유가 갈수록 VR이나 첨단기술을 이용한 체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조차 점차 인터랙티브한 방식이 더 많이 요구됩니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스펙터클

한 체험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큽니다. 모든 과정과 복잡성을 생략하고 바로바로 감각적인 것들을 전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발 빠른 움직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진형제는 오히려 인터랙티브한 체험으로 인해 사라지고 문헌 것들을 추구합니다. 다양한 기록과 물성에 남아 있는 이야기 혹은 이미지를 추적해 지금 이 시대를 다시 바라보고 싶습니다. 물론 앞으로의 공공미술은 좀 더 즉각적이고 감각적인 지점을 향해 갈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적인 요구를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심 일상에서의 관계와 경험이 스펙터클을 이루는 순간들이 코로나19 이전의 인류의 삶 속에 있었죠. 저는 한 해의 마지막 날을 떠올려봤어요. 2020년 12월 31일, 전 지구인이 신년을 맞이하는 그 엄청난 경험의 장이 코로나19 시대에 어떤 방식으로 가능할지 궁금했습니다. 감염의 위기 속에서 한국에서는 광화문 타종 행사가 온라인으로 대체되고, 일출을 보러가는 대신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온라인 영상들이 올라왔어요. 한국에서의 광화문이 상징성을 갖듯, 프랑스에서는 개선문이 있는 샹젤리제 거리가 새해 전야 행사로 유명합니다. 샹젤리제의 라이트쇼와 불꽃놀이 또한 한국에서의 타종행사와 같이 온라인으로 전환되었습니다. 2020년의 마지막 날, 파리에서는 대규모 콘서트 2개가 무관중 온라인 콘서트와 디지털 콘서트의 형식으로 열렸어요. 하나는 루브르 박물관에서 열린 DJ 다비드 게타(David Guetta)⁴⁾의 공연으로, 루브르 박물관 외관 전체를 실제 장소로 활용해서 장대한 라이트쇼를 구현했어요. 또 다른 콘서트는 2019년에 화재가 난 노트르담 성당을 장소로 한, 일렉트로닉 뮤지션 장미셸 자르(Jean-Michel Jarre)⁵⁾의 가상공간 VR 콘서트였습니다. 두 공연 모두 스펙터클을 중점적으로 구현하고, 이러한 감각을 극대화한다는 점은 큰 아쉬움을 남깁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의 시청각적 전환은 현시대에 시사점을 남깁니다. 예술이 공공영역을 공유하는 방식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해요. 두 콘서트 모두 폐쇄된 상황에서 루브르 박물관은 콘서트의 실제 장소로 활성화했고, 노트르담 성당은 화재로 소실된 성당의 모습을 디지털 콘서트로 복구했어요. 두 콘서트 모두 현재 주어진 사회적 규범을 넘어 장소를 관객과 공유합니다. 이는 반어적으로 현시대에 공공영역과 문화공간의 폐쇄성을 강하게 상기시키죠. 두 콘서트가 암시하듯 동시대 온라인 행사의 과도한 스펙터클에는 이 시대의 소망과 불가능한 판타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에 담긴 집단적 환상의 실체가 무엇인지는 앞으로 좀 더 들여다 볼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무 2018년에 <환상벨트> 전시에 참여하며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수도권의 이미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인구밀집도가 가장 높고 주요 산업시설들이 모여 있어 늘 번잡해 보이

4) DJ 다비드 게타(David Guetta)의 온라인 콘서트는 루브르박물관 유튜브 링크 참조. <https://youtu.be/9X6hH-Z1Tyw>

5) 장미셸 자르(Jean-Michel Jarre)의 디지털 콘서트는 유튜브 링크 참조. <https://youtu.be/ryrNE93Q2zg>

기만 하던 수도권 풍경의 풍경을 작가들의 여러 작업을 통해 다시 한 번 조망해볼 수 있었습니다. 각각의 작업이 환상벨트라는 큰 주제에 놓여 있었지만, 특정 공간이나 지역성을 내세우지 않아 다양한 방식으로 환상벨트라는 지형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리얼-리얼 시티>전을 통해 제시하신 도시는 주제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세밀해진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건축과 미술 전시를 볼 때 항상 분야와 매체를 나눠서 보왔거든요. 그런데 <리얼-리얼 시티>전에서는 건축과 시각예술 작품이 크게 구분되지 않는 가운데 건축에서 조형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었고, 미디어 아트 작업으로부터 도시 기능과 이미지를 떠올리는 등, 두 분야의 작업을 크게 구분하지 않고 관람했습니다. 결국 <환상벨트>에서 경기권의 도시로부터 다양하게 해석된 이미지를 이끌어내셨다면, <리얼-리얼 시티>에서는 도시를 통해 우리가 어떤 개념적인 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현재 파리에 머물고 계신데요. 사실 한국에서 파리의 소식은 팬데믹으로 인한 유럽의 도시 봉쇄와 파리시장이 제시한 ‘15분 도시’ 등, 특이한 이슈로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도시 연구 및 작업이 파리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심

말씀 주신 <환상벨트>는 기획자와 참여 작가뿐만 아니라, 이 사업의 주최였던 경기문화재단이 함께 기존의 공공미술의 형식과 한계를 가로질러 실험하는 자리였어요. 이러한 접근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공공미술이 작동되는 시스템과 프레임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도의 프레임이 주는 한계를 공공기관의 사업 담당자도 이해하고 있었기에, 기획자와 참여 작가가 제안하는 실험에 기관이 함께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내내, 경기도를 순환하는 투어 세미나에서부터 참여 작가-관객-기획팀-공공기관 담당자와 관계자가 함께 움직여 나간 데서 다른 이해를 가진 여러 당사자들의 합의점을 서서히 만들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리얼-리얼 시티>는 건축과 미술의 경계 사이에서 서로 분리되었지만, 노선이 겹치는 실천을 평행하게 펼쳐두고 도시 현실 속에서 재조직해 보고자 한 전시였어요. 도시 현실이라는 불가항력적인 자본의 장에 대한 문제의식을 서로 공유하고 있었기에, 전시 구성에서도 각각의 메시지에서 나아가 도시 현실과의 긴밀한 논의로 엮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파리에서 머문 지도 어느새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인 2020년 봄부터 저의 협업자인 줄리앙 코와네(Julien Coignet)작가와 ‘리트레이싱 뷰로(Re-tracing Buro)’란 콜렉티브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도시공간, 공공성, 기술의 지형도>⁶⁾에 대한 리서치를 했고, 그 내용을 부산비엔날레의 프로그램에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줄리앙 코와네 작가로부터 전해들은 봉쇄령 상황에 대한 소식이 흥미진진했어요.



폐쇄된 문화공간과 공공영역, 파리 루브르박물관, 2020년 12월 31일

그런데 막상 프랑스에 오자마자 봉쇄령으로 제 자신의 신체가 통제되는 상황이 되니, 현실로부터 거리두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도시공간이 변화하는 미시적 풍경을 이방인의 시선으로 관찰하고 몽타주 해보고자 했지만, 시공간이 통제된 상황에서 기인하는 심리적 공황상태를 간과하기 쉽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봉쇄령 기간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주어진 반경 1km 범위에서의 도시 산책이었습니다. 이 여정은 1km로 제한되었던 것이 점차 20km로, 외출의 시간적 범위는 1시간에서 3시간으로 완화되는 여정으로, 이후 야간통금령으로도 전환되는 시간대로 이어집니다. 도시공간을 자유로이 행보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기에, 현시점의 한계를 근간에 두고 스스로를 ‘미시-산책자’로 칭하여, 현시점에서 도시공간의 변화를 관찰해보고자 했습니다. 이 연구에 대한 원고가 계간지 『문화/과학』 2021년 봄호(105호)에 「시공간이 재단된 세계에서: 파리의 1Km 미시-산책자」란 제목으로 실렸습니다. 일상의 도시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삶의 복합적 요소를 이방인의 시선에서 분해해서 보고, 동시에 한국의 도시공간에 대한 기억과 함께 다뤄보고자 했어요. 이방인으로서 일상의 맥락 및 경험으로부터 다소 비껴나 있어, 저는 경계선에서 안팎을 힐끔거리는 방식으로 도시공간의 재배치, 공유지와 사유지, 군중의 행동 양식, 개인의 소외, 공공의 발화지로서의 거리, 시공간의 단절, 문화 경험의 불가능성 및 상품화 과정에 접근해 보고자 했습니다. 파편적인 경험과 기억, 한국과 프랑스 사이의 상이한 문화적 맥락과 도시공간의 작동 방식을 서로 몽타주 하여, 팬데믹 이후 도시공간에 머무는 환(등)상에 다가가고자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의 원고를 살펴봐 주십시오.

말씀하신 녹색당 출신의 안 이달고(Anne Hidalgo) 시장의 ‘15분 도시’는 팬데믹 이후 지역 생활권과 생태환경 구축과 관련해 세계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어요. 환경, 주거, 차량, 재활용, 에너지, 소비 영역 등 전반적으로 시민들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고 있고, 특히 기후위기와 관련해서는 에너지 소비 및 자동차와의 전쟁을 선포했어요. 도로 폭을 줄이거나 주차공간을 없애 차량을 통제하는 방안 및 도로를 일부 봉쇄합니다. 자동차 사용을 어렵게 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장려하고 있어요. 자동차 도로를 줄이고, 자전거 도로를 확장하는 것도 주요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정책에 반대하는 파리 시민도 상당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20구의 일부 도로는 교통 체증이 극심해지고, 거리의 공기 오염이나 소음도 심해져 시민들의 불만이 큰 편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은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거쳐야만 하는 일시적인 문제입니다. 한국과 같이 부동산 이슈가 도시공간을 점령한 곳에서 도시공간의 대안적 사유를 촉구하는 시민운동과 공유지 운동은 현실적으로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점차 사유화 되어가는 도시환경에서 공공영역을 지키고

확장하는 과정에서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시민사회의 동의와 자발적 참여는 더욱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한 리서치로 공유지와 사유지의 현주소와 문화적 개입의 가능성을 한국과 프랑스 사이의 간극을 바탕으로 살펴보고자 해요. 도시 현실이 여전히 코로나19의 영향 하에 있는 상황이라, 작년부터 해오고 있는 팬데믹과 도시공간 리서치도 계속 진행하고자 합니다.

2 도시,
다양한 공공이
실행되는 공간

인터뷰

김성훈(김) · 무진형제(무)

무 코로나 이후 공간에 대한 감각이 가장 많이 변화된 것 같습니다. 자가격리와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의 방역지침도 현실 공간에서 실천되고 있죠. 특히 미술관이나 도서관 등의 공공 시설이 모두 폐쇄되고 다수가 한 공간에 모여 있는 상황 자체가 위협해졌습니다. 모두가 뉴노멀을 외치며 새로운 규칙과 삶의 방식이 언급되는 가운데 선생님은 어떤 방식으로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또한 앞으로 공간의 변화를 어떻게 예측하고 계신가요. 개인의 공간, 아파트 크기와 집 뒤의 공원 등이 더 넓어질 거라고 예측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점차 사적인 공간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마을 공동체, 도시재생 등이 어떤 식으로 이뤄질지 사실 잘 상상이 안 됩니다.

김 처음에는 저도 공간이 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제 마음 속에서 내린 결론은 ‘변화가 없다’입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의 얘기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 인간은 기본적으로 뭘 해도 만나길 원하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만나지 말라 해도 기어이 만나려 하잖아요. 둘째, 공간이 갖고 있는 특성 때문입니다. 공간은 순식간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집을 하나 지어도 설계를 하고 땅을 매입해 공간 하나가 창출되기까지 절차상 가장 빨리 바꿀 수 있는 기간이 1년이에요. 큰 건물들은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알 수 없어요. 게다가 공공공간은 절차가 더 복잡해요. 작은 공간 하나 바꾸려 해도 예산을 확보하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는데 6개월에서 1년이 걸리고, 공원 하나 만들어도 3~4년이 그냥 가죠. 때문에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발 빠르게 대응해도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질 때면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코로나는 극복하고 정복해야 하는 대상이지 공존의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언젠가 코로나가 끝나면 빠르게 잊혀질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싫은 경험이잖아요. 개인이 코로나에 대응하는 방법이 손 씻고 마스크 쓰는 것밖에 없어요. 인간 스스로 얼마나 미개한 존재인가를 알려주죠. 그래서 코로나가 종식되면 잊고 싶은 욕구가 아주 강하게 생길 거라고 봅니다.

어떤 교수님이 코로나19로 인해 집이 바뀔 거라고 하셨어요. 근데 쉽게 바뀔 수 없죠. 비싸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집에 방을 하나 더 만들고 싶어도 그럴 돈이 없어요. 공간은 크게 공공재와 사유재로 나뉩니다. 사유재는 주거 공간을, 공공재는 공공이 다루는 공간이라 생각하면 돼요. 공공재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 동안 기획하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변하기 어렵습니다. 공원이나 문화센터 같은 공공재는 굉장히 오래 쓴다는 전제 하에서 계획되잖아요. 만약 코로나가 공존의 대상이면 설계를 해서 공간을 바꾸겠죠. 그런데 극복의 대상이기 때문에 언젠가 코로나가 사라지면 다시 예전처럼 쓰면 됩니다. 반면에 사유재는 굉장히 빨리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비싸요. 부자들만 가능해요. 코로나19로 인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하며 누구나 자기 서재를 갖고 싶어 하죠. 그래서 머릿속으로 서재가 달린 아파트 한 채를 짓는다는 가정을 해봤는데요. 일단 설계 단계에서 5년이 걸리고, 실제 공사 기간만 3년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간이 쉽게 바뀔 수 있다고 오해하는데, 공공재든 사유재든 공간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고 바꾸려면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코로나가 곧 극복될 거라는 기대 심리가 있는데, 왜 바꾸겠어요.

무 앞으로 이런 바이러스 감염병이 자주 출몰해 공간이 그러한 추세에 맞춰 서서히 변화될 것 같은데요?

김 우리가 공간을 활용했던 방식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나라가 코로나에 대응했던 방식은 ‘OX’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스포츠 시설의 사용을 금지한다고 해 보죠. 그렇게 되면 규모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닫아야 해요. 코로나를 극복과 방어의 아주 양극단으로 보기 때문이죠. 만약 공존해야 하는 대상으로 본다면, 그 큰 건물의 공간을 잘게 여러 공간으로 쪼개고 안전성을 높여 한 공간에서 소수 그룹만 이용할 수 있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부는 일단 터지면 공공시설부터 다 닫고 봐요. 만약 정부가 공공 시설을 작게 나눠서 사용하는 정책을 폈으면 공간적 변화에 대해 고민하며 설계에도 반영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설계자가 공간을 효율적으로 나누려 해도 정부가 다 닫아버리죠. 그래서 쉽게 안 변할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 공간은 변하지 않지만 발견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제가 했던 프로젝트가 공간의 창조가 아니라 ‘공간의 발견’이었거든요. 콘셉트를 제가 잡았는데, 의뢰가 들어왔을 때 일상 공간의 발견을 보았습니다. 제가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코로나로 인해 못 갔거든요. 그래서 근처 동네를 산책하며 주변 공간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죠. 코로나 이후 SNS에도 전국의 독특한 공간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주제를 ‘코로나 시대의 일상 공간의 발견’이라고 했어요. 기본적으로 시설물이 아닌 그 안의 콘텐츠를 다뤘죠. 프로젝트 세미나에 약 30명 가량의 사람들이 참여했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한 번에 진행하기에는 너무 많은 참석자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미나 공간에 미리 그리드를 짜서 참가자들을 5~6명 정도의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각 그룹의 동선을 다 다르게 정해서 시간과 공간을 분리했어요. 그때 참가자 중 확진자가 있었는데, 2차 감염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어요. 역학조사관이 CCTV를 보며 저희 프로그램이 참석자들이 밀집되지 않게 시간과 공간을 잘 나누어 진행했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세미나는 소통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정보의 공유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에게



'작은 도시 대장간' 워크숍 전경

인터넷 인프라가 충분해 그걸 결합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전문가 컨설팅을 할 때 옆 팀 것을 봐야 하는데, 그걸 한 장소에 모아서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에서 다 함께 볼 수 있도록 매체를 충분히 이용했습니다. 저는 처음 비대면 요청이 들어왔을 때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공간의 레이아웃을 철저히 만들어서 참가자들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한 거죠. 결과적으로 휴먼 네트워크를 잃지 않겠다는 강력한 저항에서 생긴 겁니다.

무 '작은 도시 대장간'¹⁾에서 해왔던 작업과 프로젝트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김 우리 회사는 크게 두 가지 일을 해요. 하나는 도시재생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 실행하고, 또 하나는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만드는 일입니다. 하나는 주민을 상대로 하는 교육 콘텐츠고 또 하나는 공공데이터에 관한 일이죠. 저희는 주민들의 말도 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제되지 않았을 뿐이죠. 논문으로 치면 주민들의 말은 정성적 데이터고, 공공데이터는 정량적 데이터입니다. 이 두 개가 함께 가다 보면 언젠가 어느 선에서 만날 거라는 나름의 생각이 있습니다.

'작은 도시 대장간'은 공동창업 회사인데 저는 말로 먹고 살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다른 한명은 데이터를 계속 쌓아서 작업을 합니다. 저희 회사는 주민들의 말을 정리하는 일에 굉장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예를 들어 교육을 하면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희는 주민들의 말이 사라지지 않도록 데이터화 합니다. 빅데이터에는 허수가 굉장히 많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지만, 어쨌든 방향과 강도는 보여주거든요. 어느 방향을 향해 어느 정도의 강도로 가느냐. 근데 이걸 정확하게 해주는 게 의외로 정성적 데이터, 주민들의 말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지역을 분석한다 하면 사람들이 공공데이터와 SNS 데이터를 뽑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데이터가 의외로 특정 계층에 의한 허수일 수 있어요.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의 한두 마디가 더 강력할 수 있죠. 그래서 공공데이터와 정성적 데이터 두 개를 결합시키려 합니다.

기존의 도시재생 방식은 전문가가 계획하고 시행해 왔죠. 그런데 저희의 신념은 '주민들이 생각보다 똑똑하고 많이 안다'는 겁니다. 주민은 분명 '자기중심적인 존재'입니다. 하지만 나와 우리 모두도 다 자기중심적인 존재일 겁니다.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이 꼭 부정적인 의미로만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적 관심을 이끌어 낼 수도 있습니다. 주민에게 자신들이 살아가고 관심 있는 지역에 대하여 조금 더 얘기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준다면 거기서 나온 데이터가 굉장히 강력하게 지역의 방향을 잘 잡아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의 도시 재생은 주민의 의견을 듣고 전문가가 계획을 세우는 개념이잖아요. 저희는 그 계획을



『우리동네 설계사』 마을 디자인 1단계

주민이 세울 수 있다고 봅니다. 주민이 계획을 세우면 저희 회사 같은 전문가가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 왜 주민들이 자기중심적인 존재냐. 주민의 자기중심성이 곧 그 지역을 돌아가게 하는 구동체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가들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주민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 안돼요. 공유라는 아무리 좋은 가치를 내세워도 주민들이 운영하는 가게는 자본주의적으로 지극히 경제적인 동기가 있어야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자기중심성을 투영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무 지금까지 도시재생은 항상 두 개의 목소리가 충돌해 왔죠. 한편에서는 오래된 걸 지켜야 한다고 고수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스마트 도시 등 기술을 내세우며 과거를 싹 갈아 엮어 새로운 것을 지으려고만 하죠. 그런데 ‘작은 도시 대장간’ 홈페이지를 둘러보다 보면 어느새 두 개념이 만나고 있어요.

김 첨단 기술이 아니라 각 동네의 적정 기술을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동네에 스마트라는 이름을 붙이니까 더 뛰어나야 할 것 같고 4차 산업혁명에 AI도 들어가야 할 것 같죠. 정부에서도 자꾸 그런 첨단 기술을 요구하지만 사실 지역에서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커뮤니티라는 게 동네 슈퍼 아저씨가 친절해도 형성돼요. 재생이라는 것도 각 지역의 적정 기술만 들어가면 되는데, 왜 모든 걸 알파고로 해결하려 하죠. 생각해 보면 우리 동네에 알파고는 필요 없잖아요. 공공미술, 도시재생, 그리고 도시개발에 필요한 기술은 굉장히 소소할 수도 있어요. 지금도 전 인구가 마스크 하나에 의지해 버터내고 있잖아요. 조선시대랑 뭐가 달라요.

무 도시재생의 어떤 지점에 주목하고 계신가요. 저희는 도시재생이나 개발을 굉장히 극단적인 개념으로 생각해 왔거든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이 둘이 충돌하는 게 아니라고 하셔서 도시재생과 개발 사이에서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도시재생과 개발에 대한 생각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김 도시의 가치가 뭐냐는 내용과 연결되네요. 저는 사실 10년간 재개발 공무원을 하고, 창업을 했습니다. 재개발의 흥망성쇠를 다 겪었는데요. 처음 2007년 3월 12일자로 임용돼서 동작구 흑석동과 노량진 뉴타운을 맡았습니다. 2007년이면 서울이 거의 다 재개발과 뉴타운으로 지정됐던 해죠. 그러다 리먼 사태가 터지면서 꺾었는데, 저는 그 모든 과정을 다 지켜봤어요. 그래서 도시재생이든 개발이든, 이분법적인 정책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함



『우리동네 설계사』 마을 디자인 2단계

니다. 재생을 할 곳은 재생을 하고, 재개발 할 곳은 재개발 하면 되죠. 갑자기 재개발 했다가, 재생한다고 하다가, 최근에는 공공재개발이 크게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도시는 다양성의 공간입니다. 그런데 도시의 정책론자, 학자, 활동가들은 어떤 도시를 자신의 신념에 끼워 맞춰 보려는 것 같아요. 처음엔 저도 그랬어요. 그러다 도시에 대항할지, 아니면 협력할지의 문제에 직면했어요. 서울시에서 뉴타운 해제 지역의 해결 방안으로 재생 정책을 만들었잖아요. 왜 재생이 재개발의 대척점이 되어야 할까요. 재생이나 재개발은 지역을 살리는 다양한 방법 중 하나잖아요. 그러니 다양한 선택지 중 하나로 써야죠. 재개발을 악으로 규정하면 재생이 선이 돼요. 그런데 저는 재개발은 급격한 젠트리피케이션이고, 재생은 서서히 이뤄지는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봐요. 어쨌든 돈을 투입했으니, ‘강력하게 오르느냐, 서서히 오르느냐’의 차이죠. 제가 담당했던 지역도 재개발 해제 지역이었거든요. 저는 일부러 재생에 대해 “하려면 하시고, 아니면 하지 마세요.”라고 했어요. 그걸 한다고 재개발만큼 효과도 없어요. 아파트도 못 짓고, 공공시설도 못 건드리고, 도로도 못 넓혀요. 그럼에도 왜 해야 하느냐,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한 지역을 제대로 바꾸려면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데, 실제 주어진 예산은 보통 100억~200억입니다. 서울은 집값도 높으니 안 바뀌죠. 재생은 지역을 엄청나게 변화시켜주는 사업이 아니에요. 재개발이 공격적이고 강한 무기라면, 재생은 방어적 체계에 가깝죠. 도시를 다양하게 바라봐서 아파트가 있을 곳에 아파트를 지어야 저층 주거지도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선택하게 해줘야 해요.

지금까지는 자꾸 아파트만 보여줬어요. 그런데 재개발 하면 자기분담금이 엄청 올라서 자기 집 팔아도 새 아파트를 얻기 힘들어요. 그러니 충분히 설명하고 다양한 선택지를 줘야 하는데, 자꾸 도시에다 ‘OX’를 붙여요. 재개발이 싫다면, 재생하라는 거죠. 근데 재개발 싫으면 재생 안 해도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내가 나대로 살고자 해도 방법이 있어요. 인간의 선택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도시는 굉장히 다양한 곳이고, 그 다양한 도시에 대한 시민들의 선택지도 다양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봐요.

무 보드게임으로 도시재생 콘텐츠를 만드셨는데요.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판 놀이교구로 아이들이 직접 자기 마을을 만드는 놀이까지 꾀하셨습니다. 또한 도시재생과 코딩을 결합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 공동체 자체를 데이터화해서 새로운 도시재생으로 연결하는 지점이 놀라웠는데요. 사실 지금까지의 도시재생은 과거와 현재의 마을 공동체를 지키는데 방점이 찍혀 있었죠. 또한 새로운 기술의 실행은 구도심의 것들을 모두 부순 자리에서만 가능하다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세대를



『우리동네 설계사』 마을 디자인 3단계

교육하시면서도, 항상 출발점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 두고 계십니다. 굳이 기존의 것들을 부수지 않아도 어떻게 새로운 세대가 꿈꾸는 도시를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김 대체 어린이 프로그램을 왜 하느냐고들 해요. 저는 지금 우리 도시의 상황이 너무 부동산으로 치환되는 게 안타깝워요. 소위 내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느냐, 마느냐’만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된 것도 우리나라가 선택지를 아파트만 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민의 권리를 되찾아 오면 부동산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생각해 보면 우린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배우면서 살아요. 근데 우리가 사는 공간을 좋게 만드는 법을 배우거나 가르쳐주는 경험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야말로 좋은 교육이자 엄청난 재화잖아요.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자치가 발달하면서 우리 손으로 지역을 어떻게든 바꿀 수 있는 힘도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스스로 지역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시스템이 마련될 때, 아파트와 다른 뭔가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봐요.

지금은 머릿속에 그릴 수 있는 최고의 물품이 아무리 떠올려 봐도 아파트밖에 없죠. 저는 대학원 때 서울로 올라와 13만 원짜리 고시원부터 출발해서 안 살아본 곳이 없어요. 그중에 아파트가 가장 최고의 재화이자 상품이죠. 미래의 아이들이 이러한 현실에 대항해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를 바꿀 수 있는 힘을 키웠으면 해요. 보드게임을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주거지는 다양한 공적 공간이잖아요. 그 공적 공간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항상 왜 이 어마어마한 재화 속에서 수동적 자세로 살아야 되죠. 뭔가 조금만 해도 그렇게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난리를 치면서 왜 이걸 아무도 문제 삼지 않을까요. 위대한 출발점 이거든요. 지금은 유치원과 초등학생들이 자유롭게 마을과 동네를 디자인하는 키트를 만들고 있는데요. 나중에 고등학생과 성인을 위한 보드게임을 만드는 게 꿈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임대 주택은 어디 있어야 하는가?’, ‘도시를 만드는데 쓰레기 소각장을 어디에 지어야 할까?’ 필수 시설인데 한 번도 고민해 보지 않다가, 게임을 통해 어디에 지을지 고민해 보는 거죠. 미션에 쓰레기 소각장과 재활용 센터 등 우리가 살면서 평소 꺼려하는 기반시설도 있어요. 그동안 혐오 시설로만 알아왔던 것들이 실은 지역의 누군가가 안아주고 있기 때문에 도시가 작동해왔거든요. 나중에 이런 걸 게임으로 하며, 우리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살고 있다는 현실을 공유하고 싶어요. 우리의 도시를 좀 더 복잡한 방식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역세권 주변에 쇼핑센터와 전통시장 중 어떤 것을 넣을지, 이건 개인의 선택일 수 있죠. 아니면 인구 분포로 분배해서

아파트를 한 블록으로 채울지, 용적률 300%로 쪼갤지, 아니면 150% 세 개 블록으로 나눠서 연립과 단독을 지을지, 이런 것도 선택이죠. 이런 식의 게임을 하고, 그 결과물을 데이터화해서 공공데이터와 붙여 보며 사람들의 성향과 인식, 그리고 방향성 등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저희 게임의 핵심은 ‘OX’를 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저희는 일차원적 물을 적용하거나 특정 가치관으로 설득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자기 동네를 만들어 보는데 만족합니다. 현실에서는 전문가와 공무원이 중심이 돼서 주민과 상의도 않고 지침 가이드만 주죠. 그런데 우리는 왜 신도시 계획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한 번도 물어보지 않죠? 공간과 시설 배치를 주민과 함께 짜면 안 되는 겁니까. 전문가들은 주민들을 도시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계몽해야 할 사람들로 알고 있죠. 그러다 보니 본인들의 엄청나게 많은 지식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직접 만든 신도시에 살게 하면, 주민들이 좀 더 편리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지나고 보면 불편한 것도 많잖아요. 결국 전문가랑 교수도 해결 못 하는 것들은, 주민들이 직접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무 무진형제는 지금까지 작가가 주도한 공공미술을 해왔습니다. 다양한 참여자들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무진형제의 작업으로 수렴되고 완성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참여자들과의 관계형성에서부터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진행해야 할지, 그리고 작가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많은 생각이 듭니다. 워크숍이나 강연 등을 통해 만나게 되는 참여자들이 선생님께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나요.

김 참여자들에 대해 맨 처음에 저도 마음을 많이 썼어요. 대면을 하니깐요. 그런데 아는 박사님이 “당신의 역할은 마음을 주는 게 아니다. 마음을 주지 마라.”고 하셨어요, 정을 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준다는 건 편견을 준다는 것과 똑같거든요. 우리의 역할은 친밀도를 높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객관적으로 정리해주는 거죠. 저도 모르게 정을 주다 보면 좀 더 살갑게 대하는 주민의 얘기가 맞는 것 같고, 어떤 주민의 말투나 표정이 안 좋으면 동네의 트러블 메이커인가 싶어요. 저희가 7,8주 정도 사업을 하며 2~3시간씩 보는데요. 아무리 밀도 있게 만난다 해도, 우리의 역할은 그냥 투명하게 잘 듣고 정리하는 데 있습니다.

저는 데이터 기록자예요. 저는 주민의 이야기를 잘 듣고 정리하는 사람이고, 주민은 데이터를 얘기해주는 사람이죠. 거기에 개인적 감정이 있을 수 있지만, 작업에서의 감정은 걷어내도록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도 팀원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작은 도시 대장간' 워크숍 준비 과정

결과보고서가 편향성을 띄게 돼요. 그래서 끝나면 잊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해요. 왜냐면 잔상이 많이 남거든요. 저희 프로그램이 굉장히 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박사님께 “잔상이 남는다.” 했더니 “니가 들어가서 바꿀 거 아니면, 너 그거 건방질 수도 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짧은 기간 동안 교육을 하러 들어갔으면 거기에 집중해야지, 어설피게 사람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저도 처음에는 창업자로서 엄청 마음을 주면서 했어요. 제가 잘 하는 것 같고 선한 것 같았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아니다 싶었죠. 참여자들도 제가 데이터 기록자로서 대한다고 해서 맘 상해하시진 않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얘기해요. “우리가 왜 왔나. 당신네들의 얘기를 들으러 왔고, 그걸 잘 정리해서 시각화해서 보여줄 거다.” 그래서 저희는 마지막에 모든 결과를 다 시각화해서 보여줘요.

도시재생은 공간, 즉 구역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 공간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의식과 그 공간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이 있죠. 그걸 다 리서치 해서 정리해야 나중에 계획으로 가든 실행으로 가든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육을 하러 들어간다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당신들의 얘기를 잘 정리하러 왔다.”고 하죠. 그리고 그 결과물을 마지막 날 책으로 만들어줘요. 매회차별로 그 전날 있었던 걸 정리해서 발표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다 정리해서 기록지를 쓰고요. 기록지를 다 쓰면 참여자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정리됐는지 얘기해줘요. 그리고 그 기록지를 책으로 만들어 선물이라면서 드려요. 그 책으로 공무원들과도 싸우시고, 센터와도 싸우시고, 아니면 주민들끼리도 싸우시라고 해요. 지역마다 굉장히 많은 의견이 있으니까요.

제가 이걸 왜 하나면, 누군가 참여자들(주민들) 상대로 교육을 해요. 그리고 또 1년이 흐르면, 또 다른 누가 나타나서 똑같은 걸 또 해요. 이게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처음에 주민들과 만나면 “우리 이거 작년에 다 했는데...”라고 하세요. 그래서 좀 보여 달라고 하면 자료가 없죠. 그래서 저희가 기록을 하고 책으로 만들어 주민들에게 드리면, 훗날 다른 팀과 뭔가를 할 때 어디까지 얘기가 됐는지 알 수 있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죠. 그래서 제일 처음 발주처에 가면 이 책을 들고 가서 어디까지 진행된다고 설명하고, 주민들에게도 얘기합니다. 교육은 때로 목표 지향적이어야 돼요. 과정 지향적이면 굉장히 좋은데, 그러려면 무지하게 재밌어야 돼요. 근데 무지하게 재밌을 자신이 없으면, 목표라도 명확하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민들에게 “당신들이 7주를 나오면 이거(책)는 들고 간다.”고 말해요.

저희는 관련 공공기관에서 도시재생대학 교육 용역을 받는데 일단 강의식 교육이 아닙니다. 사실 코로나 이전에 도시재생대학 교육 프로그램이 대부분 강의 위주로 이뤄졌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대규모 강의가 불가능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상 소규모 워크숍 밖에 할 게 없어요. 그 소규모 워크숍을 할 수 있는 회사를 찾아 보니 저희 회사가 있는 거죠. 예전엔 많은 사람을 불러 강의식으로 진행하고 출석률만 높으면 졸업장을 주고 끝났죠. 진행도 수월하고 강의비만 있으면 되니 비용도 적게 소요됩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의 방식은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의뢰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안 하려고 하셨어요. 사람은 적는데 용역비는 배나 비싸니까요.

무 작업의 결과물을 어떻게 공유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결과물이 담긴 책자를 보니 무단으로 도용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책자로 발간된 프로그램과 교육 내용은 직접 고안하셨기 때문에 엄연히 저작권이 있잖아요.

김 저희가 결과물을 모으면, 누군가 받아서 잘 썼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공공기관에서 해야 하는 프로젝트도 가끔 하는데, 사실 공공데이터들이 다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풍납토성에 대한 공공데이터를 한꺼번에 보는 프로그램을 만든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인구의 변화에 대한 건 사실 저희가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당시에 저희가 창업지원금 1500만 원의 지원금을 받고 고민하다 공공기관에서 안하는 걸 해보려고 엄청 큰 규모의 회사를 찾아갔어요. 서울시에 'UPIS'라는 도시계획 시스템이 있는데, 그걸 만드는 회사였어요. 그때 그 회사가 용역사가 됐고, 저희는 발주처가 됐어요. 당시에 돈이 부족해 저희가 초기 작업을 다 하고, 그 회사에서 시스템을 만들었죠. 그때 저희는 공공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랬는데 잘 되지 않았어요. 저희의 데이터를 받아서 사람들이 뭐라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희 데이터가 공공미술 작품이 될 수도 있고, 골목길 정비에도 쓰이고, 아니면 주민들과 축제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용 교육교재도 무료로 공개했어요. 그냥 쓰시면 돼요. 대신 공공기관과 큰 회사는 안돼요. 사실 저희가 만든 결과물은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들이 할 일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쓰면 안 된다고 딱 못 박아 났어요. 작은 회사와 지역에서 뭔가 해보겠다 하면 언제든지 오케이예요. 작가들이 공공미술 리서치를 하기 위해 요청하면 그냥 메일로도 보내드려요. 또 현재 저희가 페이스북을 통해 자료를 공유하기도 하구요.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공개해야 하지만, 저희 회사가 아직 작은 회사라 여력이 없어서 그냥 맘대로 쓰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신 저희 자료에서 '작은 도시 대장간'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 창작자에 대한 예의죠. 예전에 누가 카피라이트를 지우고 저희 자료를 그대로 써서 제가 엄청

뭐라고 했었죠. 기분이 나쁘잖아요. 저는 저희의 자료를 판 적도 없고 그렇다고 공공 싸맬 생각도 없습니다. 쓰고 싶으면 얼마든지 쓰세요. 단 창작자 상호간의 예의는 꼭 지켜셔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재를 배포하며 깨달은 건 제대로 쓰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용하려면 노하우가 필요하거든요. 저는 그 교재로 강의와 워크숍을 합니다. 교재를 사용할 분들에게 어떻게 써야할지 풍부한 예시를 들어가며 설명합니다. 그게 의외로 중요하죠.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창업교육을 받았을 때, 어떤 창업회사가 교육생들에게 교재를 다 주는 거예요. 그 회사는 자신 있던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는 것보다,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때 그들의 자신감을 보고 나도 언젠가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했던 이유는 홍보도 하고, 저희의 자료를 통해 다른 결과물들이 나오면 저희도 자극을 받아 상호작용을 일으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많이 쓰이길 바랐는데 잘 안 쓰세요. 사실 이 분야에서 안타까운 건 ‘왜 우리는 고민하지 않는가.’예요. 제 아들의 문제집도 버전이 엄청 다양한데 왜 이 분야에는 그런 고민이 없을까요.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여기서 뭔가 발전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성장시키려면 저희가 만든 것들을 토대로 누군가 새로운 버전을 만들어 내고, 그럼 저희도 자극을 받고 다시 한 번 도전해보겠죠. 이렇게 해야 시간이 가면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좋은 교재와 교구를 가지고 지역과 마을을 만드는 데 뭔가를 해볼 수 있어요.

무 공공미술 작업을 하며 가장 크게 부딪치는 지점이 행정기관과의 줄다리기입니다. 장소 협찬과 참여자 모집 등을 위해 기관 사람들을 찾아가지만 설득하고 부딪치는 과정에서 감정이 크게 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최대한 부딪치지 않고 원만하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하죠. 우리는 공공의 영역을 늘 평화롭고 갈등이 없는 곳으로 떠올리잖아요. 돌이켜 보면 갈등은 현실의 공공영역과 우리가 생각하는 공공영역 사이의 괴리로부터 발생합니다. 어떻게 보면 공공미술의 시작은 공공영역을 관리하고 있는 행정기관과의 대화로부터인 것 같습니다.

김 행정구역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결국 ‘생활권이나, 행정권이나’의 싸움이죠. 저는 처음에 생활권으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 행정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행정권의 장점은 비교와 비판을 할 수 있어요. 비판해야 될 주체가 명확하면 성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지자체장을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생활권은 누가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모호해요. 지방자치가 되면 될수록 그 범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봐야

해요. 저는 그런 점들이 지역을 성장시킬 수 있는 동력일 수 있다고 봐요. 마을 만들기도 생활권보다 행정권 단위로 해야 해요. 구체적으로 내 지역의 동장과 구청장에게 요구해야 하는데, 지역이 생활권 단위로 모호하게 뒤섞이면 아무것도 안돼요. 시의원과 구의원이 안 움직이거든요. 삶은 생활권이라도 그걸 바꾸는 사회 시스템은 행정으로 돼 있거든요.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가 행정권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삶을 변화시키려면 행정권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우리 사회의 강력한 공동체가 통반장 공동체입니다. 굉장히 깊숙이 뿌리박혀 있어요. 주민 자체가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통반장 공동체를 중심으로 엄청나게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도 철저히 행정공간으로 나뉘어져 있죠. 특히 서울이라는 곳은 의외로 행정권 단위가 강력하다고 봐요. 우리가 생각하는 공동체를 이루려면 행정권 공동체 내에서 주민들이 강력하게 본인의 목소리를 낸 후에 바뀌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행정권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생활권으로 바꾸려 하는데, 절대 안 바뀔 거예요. 왜냐면 예산, 정책, 조직이 행정권 단위로 움직여지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생활권을 꿈꾼다면 도리어 행정권에 강력히 대응하고 참여해야 됩니다. 제가 공무원으로 재개발 일을 할 때 생활권 얘기해주는 분들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냐면 제 권한 밖의 일을 부탁하니까요. 그런데 제 권한 내에서, 혹은 제가 소속된 구청의 권한 내에서 요구하는 민원인은 무섭죠. 그건 제가 검토해야 하니까요.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권한, 지침, 규정을 건드리면 진짜 골치 아프죠. 그래서 지역에서 변화를 도모하려면 행정권 단위에서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 생활권 단위의 일도 도모해볼 수 있습니다.

무 결국 부딪쳐야 뭐라도 할 수 있으니, 행정권 내에서 벌어지는 일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굉장히 명확하신데요. 특히 사람들을 대할 때 마음가짐이 저희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가끔 감정과 이상에 사로잡혀 저희의 역할에 혼동이 올 때도 있거든요.

김 제 친한 박사님이 “네 마음 편하려고 하는 거다. 네가 선해 보이고 싶어서다.”라고 하세요. 착한 사람하지 말고 일 하라는 거죠. 참여자들에게도 제가 열심히 일하는 게 중요합니다. 관계를 맺기 위해 참여하는 게 아니죠. 착한 사람 콤플렉스로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비치려 하는 게 전문가의 역할도 아니잖아요.

도시재생 강의에서 저는 우리나라가 아름답다는 얘기를 안 해요. 공공 시스템과 행정 시스템, 그리고 예산 시스템이 뭔지 알아야 상처를 안 받습니다.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이 바꿀 수 없어요. 담당자 붙잡고 아무리 요구해도 예산이 안 나옵니다. 저는 그런 얘기부터 해요. 도시재생 사업은 결과물이지만 과정물이 아니거든요. 참여하신 분들은 도시재생 사업을 하러 오셨으니 체계도 알아야 하고, 논리도 알아야 하고, 시스템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이 아름답다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뭐만 하면 마을이 유토피아처럼 좋아질 거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오히려 안 좋아질 거라고 해요. 그렇다고 돈 준다는데 안 하실 거냐고 물어요. 어쨌든 국가가 돈을 쓰잖아요. 국가 시스템은 예산을 사용하는데 프로페셔널이니까 아주 잘 쓰겠죠.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에 돈 쓸 때 같이 고민해서 쓸 건지, 아니면 맘대로 하도록 내버려둘 건지, 당신들의 선택이라고 해요.

3 세 개의 과거:
 막연한 불안 속에서 바라본
 근거리의 재난 이미지

인터뷰

이영주(이) · 무진형제(무)

무 저희가 사전에 재난에 관한 이미지를 요청했고, 기획자님께서 세 개의 그림을 주셨습니다. 왜 그 그림들을 선택하셨는지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 코로나19라는 새로운 재난 상황 속에서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인간’에 대한 사유를 요청하신 것 같았습니다. 막연한 인간의 이미지가 아니라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인간의 형상을 말이죠. 공공미술도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데, 사실 많은 이들과 함께 워크숍을 하고 무언가를 만드는 동안에는 참여자들이 놓인 시대적 배경이나 그로 인해 만들어진 정체성 등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동시대의 다양한 공공영역에서 마주해 왔던 참여자들에게 대해 깊이 생각하기보다 습관적으로 만나고 함께 해왔던 거죠.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기존의 방식대로 진행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저희와 함께 했던 분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김성환의 <6.25스케치 1950년 6월 29일 미아리에서 월곡까지>, 손일봉의 <동부전선의 소년병>, 임응식의 <구직>은 지금 우리의 공동체가 마주한 또 다른 재난에 대해 여러 생각할 거리를 주었습니다. 다양한 매체의 작업을 통해 전쟁 속 인간들을 제시하는데요. 공통의 재난으로 인해 변모해 가는 인간과 그 인간을 기록하며 자신들이 겪고 있는 재난이 어떤 것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공통의 재난과는 확연히 다르죠. 우리는 지금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감염병으로 인해 거리두기와 자가격리를 하며 막연한 불안과 외로움을 겪고 있으니까요.

이 을 한해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며 우리 사회 각 분야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 역시 미술관 종사자로서 전 세계 미술관이 섰다운 되는 상황을 목격했고, 그동안 미술관 안에서 관계했던 물리적, 신체적 경험을 대신하게 될 새로운 대안책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난여름 「코로나 이후의 미술관의 역할」이라는 짧은 글을 쓰게 되면서 그 이전의 위기 상황, 단절의 시대의 예술에 대해 잠시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팬데믹이나 자연재해와 같은 재난은 아니지만, 전쟁 역시 재난과 비슷한 범주, 혹은 넓은 범주에서 재난의 한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요. 마침 저는 현재 일하고 있는 미술관에서 소장품을 주로 들여다보고 연구하는 업무를 하는데, 1950-60년대 제작되었던 작품들 대부분은 6.25 전쟁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임응식의 <구직>은 지난해 미술관에서 특별수장고를 조성하면서 한 섹션으로 들어갔던 작품 중 하나였는데, 우리 미술관 전시에서 가장 다양한 주제 안에서 다뤄지고 자주 활용되는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김성환과 손일봉의 작품은 <구직>과 같은 주제 범위 내에서 찾아볼 수 있었고요. 물론 질문 주신대로 각각의 작가가 집중했던 매체나 표현하는 방식이 달랐던 것은 선택하는데 있어 매우 흥미로운 지점이기도 했습니다.

무 저희가 재난의 이미지를 요청했을 때 6.25 전쟁이란 시기의 작업들을 특정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코로나라는 감염병에만 몰두한 탓에 6.25는 전혀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근대 이후 대한민국에서 시민들의 일상이 모두 단절될 만큼 많은 것들이 파괴되었던 역사적 사건을 꼽아보면 6.25 전쟁밖에 없었습니다. 한반도에서는 당시 공동체 전체가 고수하던 삶의 방식과 가치 등이 크게 무너진 가장 최근의 단절이었죠. 그리고 무려 70년 만에 사회 시스템 전체가 코로나19로 인해 멈춰버렸습니다. 그래서 6.25란 시기를 특정하신 것 같아요.

이 저는 1950년대를 직접 겪은 세대는 아닙니다. 하지만 아주 어린 시절부터 학창시절, 그리고 현재까지 가장 오랫동안 이 시기를 간접적으로 경험한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의 피난 시절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장했는데요. 지금도 가끔 아버지께서 오늘날과 비교하며 언급하는 부분이 바로 6.25 전쟁 시기입니다. 초등학생이었던 1980년대에는 반공교육을 받으면서 공부했고요. 자연스럽게 한국 근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기록인 6.25 전쟁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기에도 지금처럼 일상의 시간이 완전히 멈추지는 않았습니. 생계를 위해 누군가는 농사를 짓고, 장사를 했죠. 당시를 살았던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이 실천해야 할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상황을 받아들이며 치열하게 살았을 겁니다. 이 시대의 미술가들 역시 마찬가지로 이전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무 세 이미지들은 6.25가 시작된 시기에 재난의 현장을 지나쳐 가는 행인, 싸움을 앞둔 소년병, 이후에도 계속해서 살아가야만 하는 구직자가 있습니다. 공통점은 작가들이 상황이나 인물을 포착할 때 굉장히 직관적으로 인물을 포착한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은 하나의 인물을 있는 그대로 포착하기가 어렵습니다. 모두 비슷한 옷을 입고 사는 곳과 삶의 방식마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시대 인물을 탐구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감각하기보다 다큐멘터리를 찍듯 깊이 분석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시해 주신 이미지가 기록된 방식은 임응식의 사진을 제외하고 지금은 거의 쓰이지 않는 방식인데요. 특히 현장에서 직접 그림을 그리는 방식이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도 세 이미지가 그려진 방식을 통해 지금과 비교하게 되는데요. 기법이나 형식상의 차이는 물론 인물에 대한 접근방식의 차이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 김성환, 임응식, 손일봉 작품의 공통점은 전쟁과 전쟁 직후의 조건과 상황을 ‘그리기’(또는



김성환, <6.25스케치 1950년 6월 29일 미아리에서 월곡까지>, 1950

촬영)라는 행위를 통한 기록과 재현입니다. 세 작품 모두 당시의 모습을 직관적으로 관찰한 결과물이자 시대를 증언한 기록들입니다. 임응식, 손일봉, 김성환은 실제로 종군기자 혹은 종군화가로 활동했습니다. 당시의 미술가들은 6.25 전쟁으로 절박한 생존의 문제에 직면하게 됐는데, ‘종군화가’라는 직업은 그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생명을 보전하는 수단이 되었을 겁니다. ‘종군화가’로서 미술가의 역할은 현실을 기록하고 재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지금도 기록의 수단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도구가 종이와 펜, 그리고 사진기입니다. 전쟁이라는 상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금 당장 눈으로 보고 목격한 모습을 가장 빠르고 간단하게 기록할 수 있는 방법은 종이 위에 연필과 펜으로 묘사하는 것이겠죠. 손일봉과 김성환에게 스케치북과 펜, 연필이라는 재료는 전쟁 속에서도 세상과 관계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특히 손일봉의 그림은 후에 그려진 다른 그림과 비교해 다소 거칠고 단순하게 대상을 표현했습니다. 어린 소년의 표정에서 우리는 어린 소년병은 물론 대상을 포착하고 있는 미술가의 절박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면 임응식은 당시에 종군 사진가로서 사진기라는 중요한 도구를 갖고 있었죠. <구직>이라는 작품은 ‘연출 사진이나, 아니냐’의 문제를 떠나 전쟁 이후의 생존의 문제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데요. 당시의 날 것 그대로의 생활 풍경이 드러나 있습니다. 특히 이 남성은 모자를 눌러쓰고 있어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데, 여기서 ‘구직’이라는 글자가 적힌 팻말 하나로 우리는 수많은 이야기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남성, 나아가 우리 사회가 처했던 상황과 현실을 이 작품을 통해 간접적으로 들여다보게 합니다.

무 지금의 시사만화는 그야말로 시사와 정치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만화가의 의견, 풍자나 비판의 목소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김성환 작가의 그림은 꼭 세태 풍자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세태에 대한 묘사, 가령 파괴 직후의 동네를 지나는 행인의 뒷모습, 불타버린 동네 풍경, 두 지붕 사이를 지나는 전투기의 이미지만으로도 당시의 세태를 충분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상사에 대한 비판과 의견이 전부가 아니라 오히려 정서적인 부분을 더 드러낸 것 같습니다. 또한 그러한 배경들이 지나치게 감성적이지 않고 덩덤하게 표현되어 오히려 좋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회화 같기도 하구요.

이 당시 김성환은 종군화가가 되면서 미술가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는 강제 징병을 피하고자 다락방에 숨어 지내면서 만화를 그렸는데, 이때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고바우’라는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그는 갓 20세로 아직 세상을 비판



손일봉, <동부전선의 소년병>, 1951

적으로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막상 전쟁의 참상이 눈앞에 펼쳐지는데 그것을 극적으로 묘사하거나 또 감성적으로 호소하기에 어려운 환경이 놓여 있었죠. 비슷한 또래들이 죽어가고 시체들이 뒤엉켜 있고 폐허로 변해가는 세상의 참혹상을 묵묵히 기록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에는 그의 스타일이 묻어나는데, 이러한 부분이 이 그림을 단순한 드로잉이 아닌 회화로 바라보게 합니다.

무 소년병은 어딘지 다 채워지지 않은 그림 같습니다. 작가도 소년도 재난에 준비되어 있지 않아 보이죠. 재난에 처한 화가의 상황이 너무 잘 드러난 그림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모든 게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점에서 이 소년병 그림은 그 순간에 가장 가까운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6.25 전쟁의 직접적인 비극이나 참상의 흔적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소년이 어색하게 걸치고 있는 군복이나 어정쩡한 자세로 들고 있는 무기 때문인지 당시 전쟁 상황 자체가 어정쩡하고 어색하게 끼어든 사건처럼 다가옵니다. 작품명 <동부전선의 소년병>이 없다면 그가 어떤 전선에 속해 있는지, 맡은 역할이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어색하고 막연합니다.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우리 또한 지금 이 상황을 그 소년병의 이미지처럼 겪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난을 기록하고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 모든 시도가 사실 이 그림 속 소년의 모습과 같아 보이거든요.

이 손일봉은 인물, 정물, 풍경 등을 그렸던 작가입니다. 그의 스타일은 대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지만 대상의 범위를 과감하게 축약하여 표현하는 데 있습니다. 이 작품 역시 눈앞에 마주한 소년병의 모습을 빠르게 스케치했기 때문에 손일봉의 다른 작품과 비교해 완성도가 다소 떨어져 보입니다. 말쑥한 바와 같이 저 역시 이 소년병의 불안하고 어색하고 막연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갑작스럽게 마주했던 지난 상황을 떠올리게 됩니다.

무 임응식의 사진은 작가가 연출한 것이란 얘기가 있죠. 무진형제에게는 시대의 재현에 대한 의문을 던져줍니다. 사진 속 인물의 차림은 누추하고 다소 삐딱한 자세지만 한자로 쓴 구직이란 두 글자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사진 자체가 연출된 것이든, 아니면 거리에서 자연스럽게 포착됐든, 전쟁 후 구직이란 말에 담긴 무게감은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이 또한 단순히 6.25 전쟁이라는 재난 속에서 경험하는 비극이 아니라 그보다 더 절실한 생존의 문제를 건드립니다. 재난 이후에도 끝나지 않은 재난상황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전쟁이라는 가시적인 재난이 지난 뒤 개인이 홀로 감당해야 하는 또 다른 재난을 보여주죠. 그래서



임응식, <구적>, 1953

임응식의 <구직> 사진을 볼 때마다 이 사진의 주요 피사체는 구직이란 두 글자이며, 그 밖의 인물들은 마치 아웃포커싱 된 주변 풍경, 혹은 액자 프레임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시대마다 구직을 둘러싼 풍경과 사회적 프레임은 늘 달라질 테고, 그런 관점에서 오늘날의 구직, 생존의 문제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 ‘연출’과 촬영연도의 불분명함으로 ‘위작’ 논란까지 있었던 작품입니다. 논란의 문제를 떠나 ‘재난’이나 ‘전쟁’ 직후의 생생한 현장에 대한 기록으로서, 그리고 위기 상황 후 우리가 겪어야 할 문제 속에서 저는 <구직>을 바라보았습니다. <구직>은 제가 가장 먼저 선택했던 작품인데, 6.25 전쟁 직후와 코로나 이후의 상황을 비교해 보고 싶었습니다. 코로나 시대 우리의 삶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순간에 직장을 잃고, 강제적으로 일터의 문을 닫게 되었죠. ‘재난’이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는 ‘상실’과 ‘소멸’이라는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무 세 점의 이미지는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미술관과 같은 공공 기관의 문이 닫혀 공공영역에서의 자유로운 활동이 불가능해진 점이 가장 큰 변화로 다가왔습니다. 미술관은 언제라도 방문할 수 있는 공공의 장소였고,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고가며 시간제약 없이 작품을 관람할 수 있었던 공간이었습니다. 그만큼 미술관이라는 공공의 장소로부터 형성된 감각이 우리에게 매우 깊게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미디어 작가로서 당장 전시를 못해도 여러 대안이 있습니다. 온라인 상영과 VR 관람이 대표적이죠. 국공립 미술관을 제외한 여러 공간에서는 나름의 방역수칙에 따라 안전하게 전시를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국공립 미술관에서의 관람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특히 소장품은 대형 미술관이 아니면 볼 기회가 없으니까요. 저희가 기획자님께 요청을 드린 것도 동시대 이전의 작업들을 보며 숙고할 기회가 사라져버린 것에 대한 아쉬움 때문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뉴노멀은 단순히 과거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오히려 과거의 것을 어떻게 재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앞서야 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미술관이 멈춰질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올드미디어 혹은 과거의 데이터들을 어떻게 재배치하고 그것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공유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고 싶었습니다. 완벽한 대안은 없고 국가기관이라는 한계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기획자님의 의견을 듣고 싶었습니다.

이 올 한 해 동안 미술관 내·외부를 통해 가장 많이 다루어졌던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1990년대 ‘WWW’의 등장과 함께 디지털 정보의 시공간을 초월한 새로운 공간의 출현을 이미 경험한 바 있습니다. 폴 비빌리오가 『시각기계(The Vision Machine)』(1994)에서 했던 지적과 같이 최첨단 기술 매체는 물리적 공간의 소멸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 디지털 정보는 이제 어디서나 존재하고 부유하는 존재가 되어 우리는 이 정보에 대한 접근이 쉬어졌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미술관의 자산, 즉 소장품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고 싶습니다. 무수한 정보가 떠다니는 새로운 공간에서 소장품은 단순히 우리의 것이 아닌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동시적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세계화된 소장품은 보다 다층적인 방향에서 연구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요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 즉 어떻게 소장품을 정보화하고 이것을 세계적 정보로 제시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쳐 있던 미술관의 기능을 점검하며, 단순히 온라인 자료를 생산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질적으로 우수한 정보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술관의 기초 기능 즉, 연구, 수집, 관리, 보존 등과 같은 보이지 않는 기능들이 미술관의 주요 기능으로 대체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무진형제는 이번 인터뷰 지면에서 이미지를 넣지 않았다. 이번 인터뷰는 애초에 그림 자체에 대한 대화가 아니었다. 작가는 과거 재난의 이미지를 요청했고, 기획자는 우리 사회가 경험한 가장 가까운 과거 재난의 시간을 6.25로 보고 당시에 활동하던 작가들의 작품 세 점을 제시했다. 하지만 세 점의 그림은 코로나19로 인해 폐쇄된 미술관에 소장돼 있고, 관람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사실 그림을 보려면 미술관 홈페이지와 구글 검색창에 접속해 클릭 몇 번만 하면 된다. VR로 대형 박물관의 작품들을 관람하고, 경매를 통해 유명 미술관에서의 1인 관람권을 비싼 값에 살 수도 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굳이 미술관을 가지 않아도 볼 게 넘치는 세상을 이미 살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 미술작품 관람 방식을 새로운 변화로 받아들여야 할까, 아니면 관람 및 리서치 방식의 획일화로 받아들여 오프라인 상에서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할까.

이러한 의문을 독자들과 함께 고민해보고 싶어 원본 이미지 대신 QR코드를 제안한다. 인터뷰에 등장하는 세 점의 이미지는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미술관 소장품을 관람하던 방식 그대로 온라인에서만 관람할 수 있다. 무진형제가 제안한 QR코드 페이지를 통해 국공립 미술관이라는 공공영역의 폐쇄를 다시 한 번 경험하길 바란다. 동시에 우리가 당장 편리하게 보고 감각하는 공통의 경로를 검토하며, 서서히 사라지거나 폐쇄된 방식에 대해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길 바란다.

4 사라진 지층:
오래된 길 위에서

길 안내

김성일

인터뷰

김성일(김) · 무진형제(무)

가 월곡역 | 월곡(月谷) → 장위(長位)

오늘 우리는 어느 평범해 보이는 길을 따라서 천천히 걸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월곡에서 장위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사실, 이렇게 걷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저 낯선 동네를 한번 둘러보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코로나 시대에 잠시 ‘숨 쉴 곳’을 찾아 나서는 것일 수도 있겠지요. 어쩌면 ‘길’이란 미지의 공간을 보여주는 안내자일 뿐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안식처(安息處)’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전에 월곡에서 장위로 가기 위해 과연 어떤 길로 다녔을지? 그 길이 아직 남아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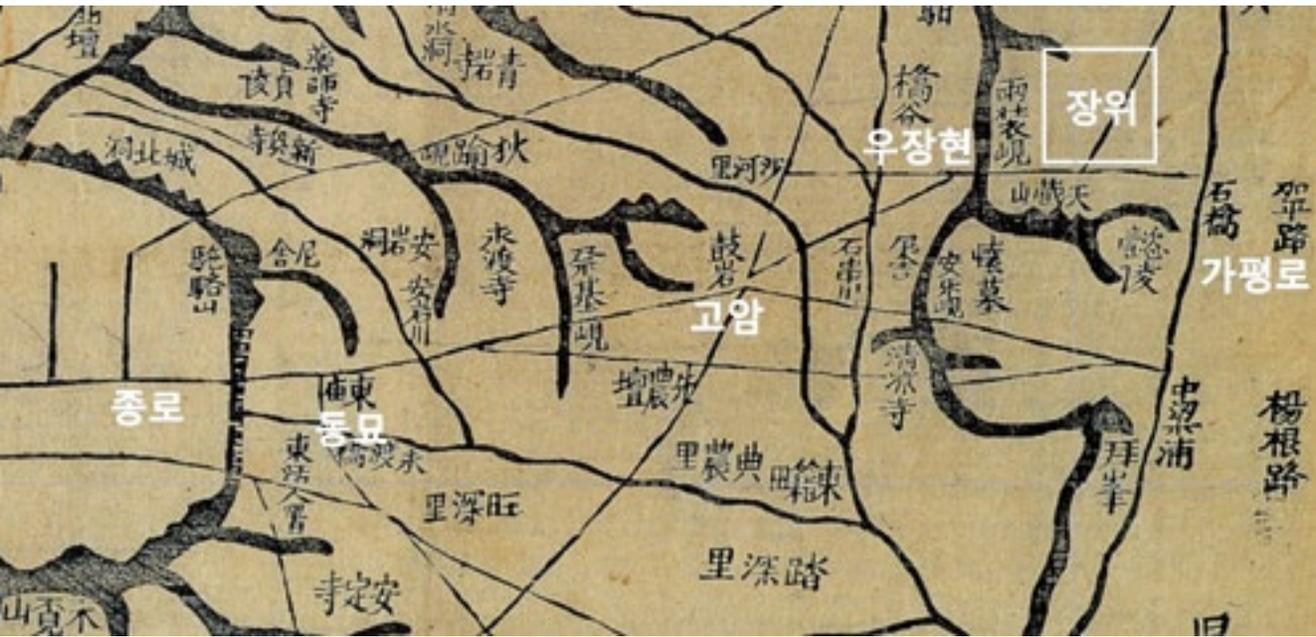
나 화랑로11길 | 옛길(古道)

사실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걷는 이 길이 바로 ‘옛길’입니다. ‘지적원도(地籍原圖)¹⁾’라는 자료를 통해 알 수 있죠. 1910년 강제병합 이후 일본은 식민지가 된 조선의 토지를 전부 조사했습니다. 당시는 나라의 부가 대부분 농토에서 생산되던 시대여서, 조선의 국부(國富)를 수탈하기 위한 물밑 작업으로 토지를 먼저 조사했죠. ‘지적원도’는 그 조사의 결과 물임과 동시에 조선 후기의 지적 현황을 유추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것을 요즘 지도와 비교해 보면 이 길이 ‘옛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옛길’은 요즘의 길과 어떻게 다를까요? 근대 이후 만들어진 이른바 ‘신작로(新作路)’는 대부분 곧고 평탄한데, 옛길은 상하좌우로 굴곡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토목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 땅을 파헤치는 대신 지형을 따라 돌아가는 길을 택했죠. 일찍이 가우디(Gaudi, 1852~1926)는 ‘직선은 인간의 것, 곡선은 신의 것(La línea recta es del hombre, la curva pertenece a Dios)’이라고 했는데, 절묘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옛길’이란 주어진 지형 위에 무수한 발걸음들이 쌓이면서 형성된 ‘집단 경험의 산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옛길을 왕래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하다 보면 자연스레 과거의 시간과 현재의 내가 만날 수 있는 시공간의 접점이나 접촉면이 드러나죠. 마치 머나먼 과거에서 날아온 별빛들을 현재의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바라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 장월로1길 | 고개를 오르며

여기 도로명이 ‘장월로1길’입니다. 장위와 월곡 사이의 길이라 그런 이름을 붙였겠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무감각하고 편의주의적인 작명입니다. 원래는 대단히 유서 깊은 고갯길인데 말이지요. 김정호 선생이 만든 ‘대동여지도’를 보면 우장현(雨裝峴)이라는 이름이



‘대동여지도_도성도(부분)’, 1861년, 서울역사박물관

나옵니다. 현(峴)은 고개라는 뜻이죠. 동대문에서 출발해서 고암(鼓岩, 종암)을 거쳐 대략 월곡까지 오면, 그 다음에 ‘우장현’을 넘어야 장위로도 가고 멀리 가평(加平)으로도 갈 수 있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일개 고개가 전국 지도에 등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통행로라는 의미가 되겠죠. 지금은 그다지 대단해 보이지 않지만, 예전에는 제법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던 길이었습니다. 그 중에 조선의 제22대 국왕인 정조(正祖, 1752~1800)가 있었습니다. 1785년 2월 10일 『일성록(日省錄)』의 기록을 보면, 정조가 태릉(泰陵) 방면으로 참배하기 위해 동묘에서 말을 타고 오다 우장현에 이르러 말에서 내렸다는 구절이 나옵니다.²⁾ 지금은 너무 평범한 길이라 왕의 행차를 떠올리기가 쉽지 않지만, 예전에 백성들은 임금님이 지나가면 직접 하소연하기 위해 팽과리를 울리곤 했습니다. 이것을 격쟁(擊鉦)이라고 하죠. 정조는 격쟁을 잘 들어주는 임금이었습니다.

우장현은 정조의 아들인 순조(純祖, 1790~1834)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순조에게는 자녀가 여러 명 있었는데, 모두 명이 매우 짧았습니다. 첫째 명은(明溫, 1810~1832)과 셋째 복온(福溫, 1818~1832)이 같은 해에 숨졌고, 10여 년 후에는 막내 덕온(德溫, 1822~1844)마저 급서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길을 계속 따라가면 덕온공주와 복온공주의 묘터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의 장위동과 변동에 해당하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 당시 공주들의 상여(喪輿)는 묘터까지 어떤 경로로 운반되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고개를 통과했을 것으로 조심스레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다른 우회로가 있을 것 같지 않기 때문이죠.

계속 걷다 보니 조금씩 경사가 느껴지는데요, 여기서 잠깐 주변을 살펴볼까요? 지금은 건물들로 빼곡하지만 예전에는 거의 야산이나 논밭이었고, 길을 따라 집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다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저층 주거지가 조성되고, 그 다음으로는 아파트 재개발이 일반화되었죠. 원편에 20층이 넘는 아파트 단지가 보이는데요. 여기에도 원래는 작은 집들과 골목들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모두 사라지고 과거와 완전히 단절된 공간이 들어섰습니다. 이런 식의 불연속적·불가역적 공간 변화를 보면서, 우리가 낭떠러지 위에서 있는 것은 아닌지 착각하게 됩니다. 오래된 맥락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길은 더 공허하고 위태롭게 바뀌고 있습니다.

라 장월로 | 고갯마루 육거리

드디어 고갯마루에 도착했습니다. 고개라 해도 경사가 완만해서 싱거운 느낌인데요. 주변 지형을 볼까요? 저기 남측으로 멀리 보이는 산이 천장산(天藏山, 해발 140미터)입니다. 그리고 반대편으로 오르막을 따라가면 월곡산(月谷山, 120미터)이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국민주택

양쪽 산 사이에서 있다는 것이 명확하죠. 참고로 이곳 높이는 약 40미터로 높지는 않아도 장위동을 조망하기에는 충분합니다. 정조가 우장현을 넘으면서 “동쪽은 산천이 광활하고 들판이 넓게 트여 한눈에 30~40리가 들어와 막히는 곳이 없다.”³⁾고 하셨습니다. 지금 봐도 장위동 방향으로 땅이 넓게 펼쳐진 느낌이 들죠. 그럼 이제 월곡에서 장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 장월로4길 | 내리막길 안쪽 동네

갑자기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니 의아하실 텐데, 지적원도를 보면 이 길이 예전부터 장위로 넘어가는 유일한 루트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고개’에 대해 평소 어떤 인상을 갖고 계신가요? 요즘은 고개의 존재감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예전에는 훨씬 중요했을 것 같습니다. 고개란 그 자체로 하나의 이정표이며, 그 위에서 걸어온 길을 돌아보거나 나아갈 방향을 전망하게 되니까요. 또한 고개란 일종의 ‘시적 공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서낭 고개’라는 말처럼 신령스런 분위기도 있었던 것 같고요. ‘전설의 고향’⁴⁾에서도 보면 고개와 관련된 전설이 유독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서울에는 고개도 전설도 거의 사라졌죠.

여기는 장위동 남측 지역인데요. 동네 느낌이 어떤가요? 경사지라서 햇볕이 많이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비교적 평온한 주택가입니다. 이웃끼리 마주치면 인사를 나누고 싶은 분위기죠. 그런데 2006년경에 장위동 전체가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일부 구역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고 철거된 상태로 방치된 곳도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처럼 아파트 값이 치솟으면 개발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져, 뉴타운 사업에 회의적인 곳에서도 재건축 논의가 다시금 불붙게 됩니다. 이곳 15구역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서울은 모든 게 금방 바뀌니까 정이 잘 안 가요. 무정(無情)하기도 하고 비정(非情)하기도 하지요.

바 화랑로19가길 | 국민주택과 시대정신

내리막을 걷다 보니 비교적 평탄한 사거리가 나오네요. 우리의 시야도 함께 넓어졌죠. 여기서 잠시 발길을 북측으로 돌려 1950~60년대 동네를 둘러보겠습니다. 동네 분위기가 사뭇 다르죠. 비슷한 집들이 가로로 쪽 이어져 있는데, 주민들에 따르면 공병대에서 지었다고 합니다. 직접 구운 블록으로 벽을 쌓았고, 특히 가운데 주먹돌이 박혀 있는 것이 매우 튼튼해 보입니다. 역시, 군인들이 지었을 법한 인상을 주지요. 그런데 왜 이런 집들이 지어졌을까요?

이 집들은 일종의 공공주택으로 ‘국민주택’, ‘재건축주택’, ‘부흥주택’ 등 여러 이름으로 불렸

3) 而東邊則山川廣闊。原野曠寬。一望三四十里。無所蔽障。

4) 전설, 민간 설화 등을 소재로 KBS에서 제작한 드라마. 1977년 10월 <마나산 효녀> 편을 시작으로, 12년 동안 꾸준히 방송되었으나, 1989년 10월 578화 <외장녀> 편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림. (위키백과 참고)

습니다. 이름으로 보면 ‘시대정신(Zeitgeist)’이 투영된 집이지만, 건축양식은 일제강점기 주택과 크게 다르지 않죠. 예전에는 2층에 다다미(たた미)가 깔려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서울의 주택난은 해방 전부터 심각했습니다. 주택 공급을 위해 ‘조선주택영단(LH공사의 전신)’이 설립되기도 했죠. 그런데 한국전쟁 이후 공공주택을 건립하면서 일제강점기 주택 모델을 그대로 답습했습니다. 이처럼 겉으로는 ‘부흥’과 ‘재건’을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일제의 잔여물을 ‘재활용’하던 시대였습니다. 건축뿐 아니라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상황은 비슷했을 겁니다. 앞으로 이 집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근현대의 단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일부라도 보존되었으면 합니다.

사 돌곶이로27길 | 장위전통시장과 물길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치지 못하듯, 저 역시 시장을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시장에 가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이지요. 자고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 시장이 있게 마련인데, ‘도시’의 ‘시(市)’가 바로 시장이란 뜻이죠. 그런데 뉴타운 사업은 여기 ‘장위전통시장’을 반으로 축소시켜 놓았습니다. 북측 절반이 10구역 재개발 예정지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러니 남은 반쪽도 언제까지 유지될지 알 수 없죠. 아파트 조금 더 짓겠다고 오래된 시장의 허리가 잘리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시장의 남측으로 나오면 주변에 파출소, 우체국, 은행 등이 모여 있는데요. 이곳이 마을의 중심지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이제 다시 옛길(돌곶이로27길)로 돌아왔습니다. 보시면 이번 길은 상당히 곧은 모습인데요. 지적원도를 보면 ‘개천 구(溝)’와 ‘길 도(道)’가 나란히 표기되어 있어, 여기가 원래 물길이 지나던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길을 따라 길이 있었는데, 도로가 만들어지며 조금 더 직선화된 것 같습니다.

아 돌곶이로 → 장위로 → 장위로45길 → 돌곶이로34길 | 신화의 현장

지금 우리는 ‘돌곶이로27길’이 ‘돌곶이로’와 만나는 삼거리에 와 있습니다. 길 좌측으로 가림막이 세워져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10구역 재개발 지역이에요. 가림막 틈으로 보면 멀쩡한 건물들인데 모두 철거될 운명입니다. 머지않아 여기도 저 앞에 보이는 4구역처럼 ‘쑥대밭’이 되겠죠. 저는 이렇게 느닷없이 마주치게 되는 도시의 황폐함이 늘 불편해요. 여기에 살던 주민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들은 집도 잃고, 이웃도 잃고 결국 삶의 의미마저 잃어가겠죠. 이게 바로 ‘아파트 신화’의 민낯이 아닐까요. ‘(멀쩡한) 마을 철거’에서 세계 1등이라 할 수 있는 한국은, 어느 프랑스 학자의 표현대로 ‘아파트 공화국(La République des Appartements)’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저히 부인할 수 없습니다.



김진홍 가옥

아, ‘옛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아까 말했던 물길이 저 앞 4구역으로 흘러가고 옛길도 그렇게 나있었는데, 이제는 들어갈 수조차 없습니다. 그럼 나중에 재건축이 끝났을 때 과연 옛길이 남아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은 비정한 도시입니다. 옛것은 아무것도 남겨 두지를 않습니다. 할 수 없죠. 땅의 역사가 지워지는 것을 바라보며, 옛길은 아니지만 ‘돌곶이로’와 ‘장위로’를 따라 걸어보겠습니다. 다행히 다음 경로인 ‘장위로45길’과 ‘돌곶이로34길’은 예전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자 돌곶이로34길 4-11 | 장위동 김진홍 가옥(서울특별시 민속문화재 제25호, 1977년 지정)
 드디어 우리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 중 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서 깊은 한옥을 간단히 설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명칭부터 혼란을 유발하기 때문이죠. 가옥 명칭에 등장하는 김진홍 선생은 오랫동안 이 한옥을 소유하셨던 분으로, 고택을 잘 관리한 공로가 있습니다만, 이 집의 본래 내력과는 무관한 분입니다. 시대가 전혀 다르니까요. 생전에 불교재단에 가옥을 기증하셔서 현재는 ‘선원(禪院)’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집의 원래 용도는 살림집이 아니라 묘소에 딸린 ‘제청(祭廳)’입니다. ‘제청’이란 묘제(墓祭)를 준비하기 위한 시설로, 제사에 필요한 음식을 장만하고 물품을 보관하며 우천(雨天)에는 대청에서 망제(望祭)를 지내기도 합니다. 또한 평소 묘를 돌보는 사람의 생활공간이기도 합니다. 이 집에는 덕온공주의 남편인 남녕위(南寧尉) 윤의선(尹宜善, 1823~1887)과 양아들 윤용구(尹用求, 1853~1939)가 기거하였는데, 특히, 윤용구 선생은 양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이조판서를 사임하고 이곳에서 작고할 때까지 거의 은둔 생활을 하였습니다. 가옥의 구성을 보면 안채와 사랑채가 중심 건물이고 별채와 문간채 등이 딸려 있는데, 왕실과 관련된 궁가(宮家)로서의 품격이 남아 있습니다. 건축연대는 1865년으로 알려져 있는데 확실한 근거는 부족하며, 다만 사랑별채에는 1905년(광무9)에 지어졌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간혹 공주의 신혼집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공주 사후에 지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공주의 무덤 추정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200미터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만, 원래는 가옥과 한 영역이었습니다. 현재는 중간에 들어선 집들로 인해 큰길로 돌아가야 하지만, 과거에는 묘역을 가로질러 무덤까지 바로 갈 수 있었죠.

차 돌곶이로 173-1 부근 | 덕온공주의 죽음과 장위리의 무덤
 1844년 음력 5월 24일,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에는 “덕온공주의 오늘 죽음은 전례를 따라 제반 의식을 거행하라.”⁵⁾는 국왕 헌종(憲宗, 1827~1849)의 분부가 실려 있습니다. 1837년

5) 傳于徐念淳曰, 德溫公主, 當日卒逝, 諸般舉行, 依例爲之.



덕온공주 묘터(추정지)

하(下嫁)한 지 불과 7년만의 변고로, 불과 23세의 나이였습니다. 당시 만삭의 몸으로 왕실 잔치에 참석했다 심하게 체하면서 태중의 아기와 함께 운명했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인 6월 12일, 공주의 못자리를 장위리에 정하였다는 예조(禮曹)의 보고가 올라옵니다.⁶⁾

‘조선의 마지막 공주’인 그녀의 묘소는 현재 그 소재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1950년대 항공사진을 통해 묘(윤의선과 합장)가 장곡초교 사거리 부근에 있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지만, 묘가 있던 자리에 도로(돌곶이로)가 뚫리며 묘의 행방은 미궁(迷宮)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이장되었을 가능성이 큰데, 후손들도 관련 내용을 모르고, 주민들 중에 간혹 ‘공주릉’에 대해 말하는 이는 있지만 실제 봤다는 사람은 아직 만나 보지 못했습니다. 그 흔적은 물론 기억도 이제 거의 사라진 것 같아 공주의 이른 죽음만큼이나 애석한 일입니다. 이 가옥과 집안에 대해서는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으나 자세한 내용을 소개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다만 몇 해 전부터 덕온공주와 관련된 기사가 아주 많아졌습니다. 또한 윤용구 선생은 일제의 귀족 작위를 거부한 분으로 유명합니다. 고종과는 4촌 관계죠. 그동안 서화가로서 간혹 조명되었지만, 여러 면에서 대단히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아무쪼록 관련 내용을 꼭 한번 찾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카 돌곶이로41길 → 월계로 | 번암 채제공

그럼 이제 복은공주의 유적을 찾아보기 위해 ‘북서울 꿈의 숲’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장월로24길, 장월로23길, 돌곶이로41길, 월계로32길이 모두 옛길인데 지금도 잘 남아 있군요. 그리고 그 끝에 대로가 나오는데 바로 ‘월계로’입니다. 사실 이 길도 옛길이지요. 지금은 차들이 많이 달리고 있지만, 과거에는 미아(彌阿)에서 넘어오는 고갯길이었습니다. 보시면 우장현과 달리 고개가 훨씬 높아 지금도 걸어서 넘기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월계로를 건너면 강북구 번동(槃洞)으로 관할 구(區)가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혹시 채제공(蔡濟恭, 1720~1799)을 아시는 분이 있나요? 정조가 가장 아끼는 신하 중 한 명이었고, 수원 화성(華城) 건립에 큰 역할을 하신 분이죠. 정약용(丁若鏞, 1762~1836) 선생과 같은 남인(南人)으로, 수원에서도 함께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분의 호가 바로 번암(槃巖)입니다. 『번암집(槃巖集)』이라는 방대한 분량의 문집도 남아 있습니다.

갑자기 번암집이 왜 나오냐고요? 번암집을 보면 이 분이 1779년부터 1786년까지 ‘명덕동(明德洞)’에 살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명덕동’은 우리가 방금 지나온 ‘돌곶이로41길’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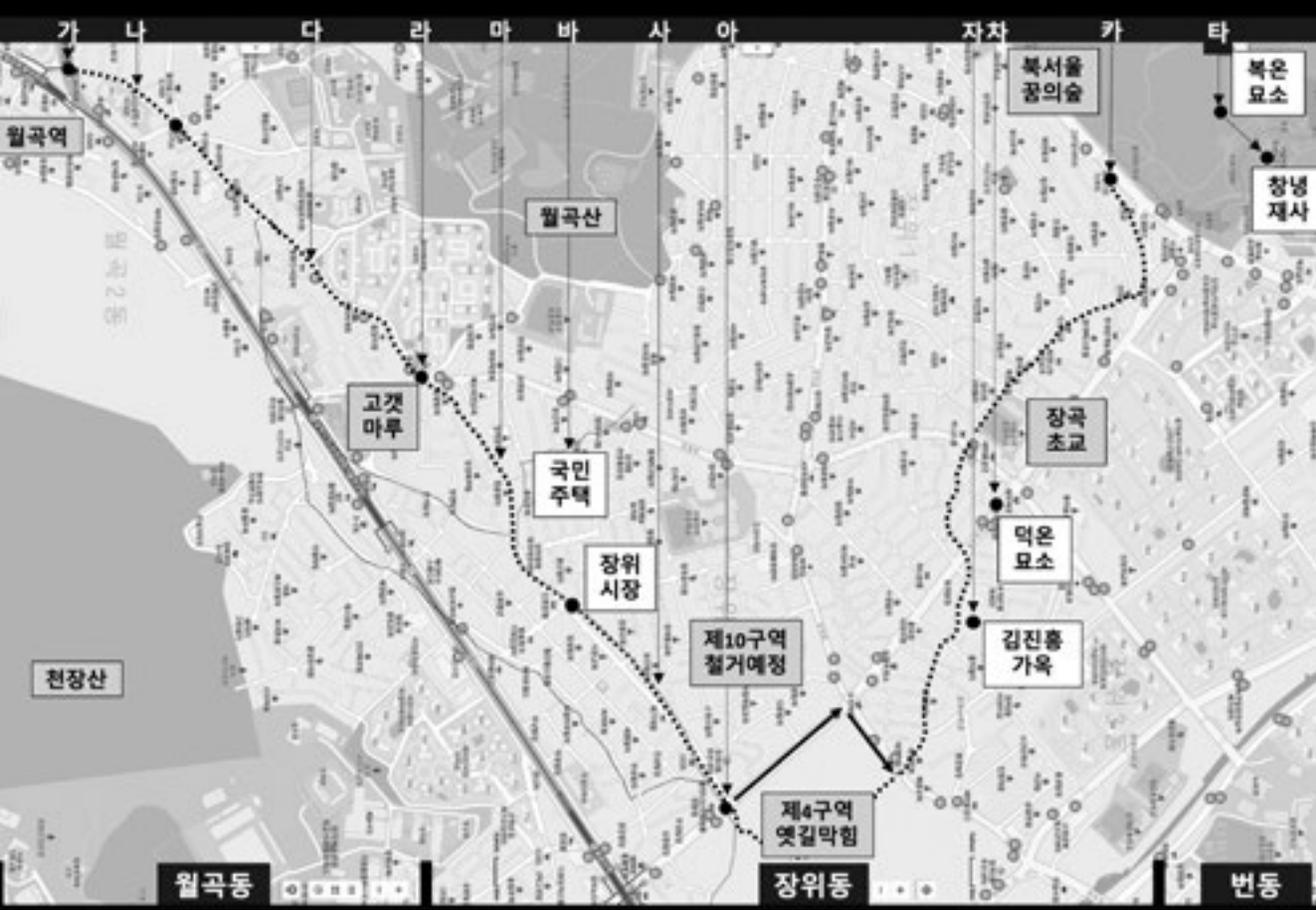
6) 德溫公主新定墓所, (중략) 而四標則西至明德洞, 東至長位里, 南至外白虎山脊, 北至東安坪接界云矣,

변부라고 저는 추정하는데요. 대략 변동과 장위동 경계 지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전 어른들은 자신이 사는 곳의 지명을 ‘호(號)’로 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채제공의 ‘변암(槃巖)’은 변동의 옛 지명인 변리(槃里)에서 유래한 것으로 볼 수 있죠. 채제공에게 명덕동에서 보낸 6~7년은 중앙 정치에서 배척당한 시기였지만, 한편으로 재기(再起)를 위한 인고(忍苦)의 세월이었기 때문에 각별할 의미가 있었을 겁니다. 1799년 서거하기 전까지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 등 재상(宰相)의 반열에 있었습니다. 서쪽 하늘을 보니 어느새 해가 기울고 있군요. 서둘러 변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타 월계로 173 | 창녕위궁재사(국가등록문화재 제40호, 2002년 지정) + 복은공주 묘터
 순조의 셋째 따님인 복은공주는, 1830년 창녕위(昌寧尉) 김병주(金炳疇, 1819~1853)에게 시집을 갔으나 2년 만인 1832년 음력 5월 12일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만난 명은공주마저 운명함으로써 왕실의 슬픔은 극에 달하게 되죠. 사실 1829년 둘째 영은(永溫)옹주의 죽음 이래 1830년 효명세자, 1834년 순조, 그리고 1849년 헌종의 붕어(崩御)까지 왕실에는 초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왕실은 슬픔에 젖었고, 정치의 방향을 잃었습니다. 같은 시기 일본의 번(藩)들이 경쟁적으로 서양 문물을 수용하며 근대를 준비하던 것에 비해, 매우 큰 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차이는 결국 조선의 멸망과 강제병합으로 이어집니다.

지금은 ‘북서울 꿈의 숲’이라는 평화로운 공원이지만 111년 전 이곳에서 한 남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나라가 망한 것에 대한 울분과 일제의 회유에 치욕을 느끼고 자결을 결심한 그의 이름은 김석진(金奭鎭, 1843~1910.9.8.)입니다. 김석진 선생은 복은공주의 양아들인 김도균(金道均)의 양아들로 공주의 손자가 되는 분이며, 효명세자의 양아들로 입적된 고종(高宗)과는 촌수로 5촌 조카입니다. 순절(殉節)하신 뜻을 기려 1962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습니다만, 아까 소개한 윤용구 선생과 더불어 이 고장이 배출한 ‘애국지사(愛國志士)’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음이 숙연해지는군요.

이곳 ‘창녕위궁재사(昌寧尉宮齋舍)’는 부마 김병주와 공주의 묘에 부속된 ‘재사(齋舍)’로서, 원래는 앞서 언급한 ‘제청(祭廳)’과 유사하게 제사를 준비하는 시설입니다. 여기서 ‘재(齋)’는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보면 안채와 사랑채만 남아 있지만, 원래는 기단 아래로 부엌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사 음식 등을 준비하는 용도였겠지요. 자, 그럼 공주의 무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저기 공원 건너편에 보이는 산 중턱에 있었습니다. 복은공주와 남편 김병주의 합장묘는 1993년에 용인으로 이장되어 현재는 표지석만 남아 있습니다. 무덤은 없지만 그래도 과거를 알려주는 설명이 있다는 것이 큰 다행이지요. 덕은



우장현과 장위동의 옛길

공주의 묘소가 흔적 없이 사라진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처럼 공주라고 해도 부마 가문의 후대 사정에 따라 묘가 관리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곳은 지대가 높아 주변을 조망할 수 있는데요. 남측으로 800미터쯤 떨어진 곳에 위치한 덕온공주의 무덤도 아마 여기에서 보였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서로 손짓하여 부를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 자매들의 넋이 잠들어 있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옛길을 걸어오면서 공간과 시간이 빚어낸 다양한 장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장위동 옛길을 조사하다 덕온공주의 묘가 있었다고 해서 자료를 뒤적여 보았고, 옛 항공사진까지 찾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옛길을 발견하며 어느 순간 꺾어지는 게 있었습니다. 월곡역에서 북서울 꿈의 숲까지 하나의 라인이 만들어졌죠. 이걸 어떻게 느끼느냐는 개인마다 다 다를 겁니다. 또한 다음 세대로 연결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에게만 다음 세대로 넘겨줄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럼 이것으로 오늘의 여정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무 지난 번 장위동 탐방 때 덕온공주 묘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표지석을 세우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서울이란 도시에서 덕온공주의 묘가 어떤 의미 혹은 상징이 될 수 있을까요. 역사적인 장소기 때문에 복원해야 한다는 당위를 넘어, 동시대인들의 삶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김 덕온공주의 묘소가 장위동에 있었을 때 주민들은 흔히 ‘공주릉’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조선의 마지막 공주’라는 점을 부각하지 않더라도, 평범한 마을에 일국의 공주가 잠들어 있다는 사실이 인근에서는 늘상 화제가 되었겠지요. 그러나, ‘공주릉’은 어느 틈엔가 본래의 위치에서 사라졌고, 어디로 옮겨졌는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무상(無常)한 변화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럴수록 그 ‘없음/없어짐’이 더욱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남북의 분단체제 속에서 후진국(後進國)의 서러움을 만회하기 위해 ‘빨리빨리’ 정신으로 달려온 우리들의 지난날은 실로 놀라운 성취를 이룩하였으나, 한편으로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고, 심지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공주릉 실종’은 말하자면 그런 사례들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이지요. 결국, ‘공주릉’은 그 존재가 아니라 그 부재(不在)를 통해 역설적으로 우리가 ‘한강의 기적’이라 부르는 시대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망각’의 불도저는 지금도 달리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물질에 매몰되고 인정이 각박(刻薄)해질수록, 우리 주변의 더 많은 것들이 소리 없이 사라져 갈 것입니다. 옛길도, 골목도, 마을도, 그리고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그렇게 사라집니다.

무 장위동 탐방을 하며 많은 이들이 각자의 도시와 삶의 터전을 함께 걷고 천천히 사유하는 경험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현재 옛길을 연구하시면서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탐방하고 계시는데요. 앞으로 탐방 외에 더 많은 사람들과 어떤 방식으로 연구 결과를 공유하실지 궁금합니다.

김 지역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학문적인 전문성’도 필요하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기간에 제한된 자료들을 기초로, 외부 전문가가 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보편적인 방식이지요. 일종의 하향식 접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에 비해, 지역의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장기간에 걸쳐 근처의 자료들을 아카이빙하면서,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지역 사회 등에 제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식이 아닌가 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연구모임’이나

‘지역해설사’ 등의 단체를 조직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지요. 실제로 장위동에는 지역 연구와 홍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해설사 분들이 계시고, 저도 가끔씩 그 선생님들과 토론의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의 연구를 설명 드리거나, 그들이 현장에서 발굴한 내용들을 전달 받기도 하지요. 이런 방식이 좀 더 ‘풀뿌리’의 생명력이 있는 지역 연구가 아닐까 합니다. 다만, 서울 같은 도시의 경우 ‘아파트’가 보편적인 거주 형태가 되면서, 지역이 간직한 고유한 토대가 송두리째 증발하거나, 지역에 애착을 갖는 주민들이 수요가 급격히 줄어든다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요. 동네에 대해 오래된 기억을 품고 계신 어르신들도 고령이 되시면서 점점 만나 뵈기가 어렵게 되었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의 도시 공간은 ‘현실 공간’과 ‘기억 공간’으로 분리될지도 모릅니다. 전자는 계속해서 맥락 없이 변모할 것이고, 후자의 영역에나 겨우 지역에 대한 것을 ‘추억처럼’ 저장할 수 있겠지요. 요즘 이러한 방식으로, 지역의 여러 요소들을 아카이빙하고 그것을 인터넷에서 제공하려는 시도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관심을 갖고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효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개 연구자에 불과한 제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작업에는 한계가 명백하고요, 지역 주민들과 현장에서 교류하면서, 웹 기반의 공유 방식을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무 저희도 공공미술을 진행하며 많은 주민들과 접촉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삶의 터전마다 다양한 사심과 목적의식으로 들끓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이 재밌기도 하고 때론 회의감이 들 때도 있는데요. 동시에 도시 개발 혹은 발전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특히 파주에서 신도시와 구도심지를 오가며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이런 의문이 더욱 강해지는데요. 선생님과 장위동 탐방할 때도 뉴타운 개발지 앞에서 사라진 옛 길을 아쉬워하며 개발과 보존에 대한 여러 얘기를 나눴습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듣고 싶어 질문 드립니다.

김 ‘사람은 먼저 그 산천(山川)을 닮는다’는 신영복(1941~2016) 선생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이 근시적인 ‘목적의식과 사심’에 의해 창조된 도시 공간은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편협한 생각입니다만, 저는 기성세대의 ‘물질적 욕망’이 다음 세대의 ‘마음의 빈곤’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시스템’이 아무렇지도 않게 작동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이 아버지(또는 할아버지) 세대가 아들(손자) 세대에게 ‘돌격 앞으로’를 명령하는 죽음의 위계 구조가 아니었던가요? 마찬가지로 지금의 어른 세대는 자식세대에게 ‘물질을 향해 돌격 앞으로’를 외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 서울역 역사(驛舍) 안에서 다리를 절뚝거리는 비둘기 한 마리를 보았습니다. 금요일 퇴근 시간이라 인파로 굉장히 붐볐는데, 순간 저는 역사 전체가 거대한 새장처럼 느껴지더군요. 역 안에 불쌍한 새 한 마리가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새장 안에 너무나도 많은 인간들이 불청객처럼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환상’을 경험했던 것이지요. ‘진정한 도시 개발 혹은 발전’이란 비둘기가 비둘기로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요? 나무들이 나무로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 모든 생명체가 그 본연의 생명으로서 살아가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만 명심한다면 개발이든 발전이든 크게 염려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5 측정되고
연구되는
공중(公衆)의 영역

인터뷰
이세원(이) · 무진형제(무)

무 산업혁명 이후 공장이 늘고 인구가 증가하며 이전 시대와 다른 양상으로 환경이 오염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다양한 질병이 출몰했는데요. 단정할 수 없지만, 저희는 기후위기와 환경의 변화로 인해 다수 발생하고 있는 현재의 유례없는 감염병의 시작점 또한 산업혁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당시 집단을 대상으로 한 공중보건의 대표적인 실험에 대해 알려주세요.

이 제가 공부하고 있는 곳이자 산업혁명의 출발지인 영국에서의 사례를 들어 산업혁명 당시 환경오염으로 인한 문제들과 그 해결 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19세기 산업혁명 시기에 공장이 모여 있는 도시로 많은 사람들이 이주하며, 낙후되고 밀집된 주거 공간과 오염된 하수시설 등으로 인한 공중보건 문제가 생겨납니다. 당시 정부는 주거, 하수도, 근로조건 등의 문제는 법에서 규제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유한 계층도 이러한 상황 개선에 추가적으로 세금을 내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보건문제들이 대두되면서 1840년도부터 의회가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Report on the Sanitary Conditions of the Labouring Population」라는 보고서를 통해 사망률과 질병 발생률이 낙후된 주거환경으로 인함이 밝혀지며 공공의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Manchester의 경우 전문직 종사자들의 평균 수명(약 38세)에 비해 육체노동자들의 평균수명(약 20세)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848년에 콜레라로 인해 Glamorgan시에서 3,000명 이상의 사망했으며, 이를 포함해 지역적으로 콜레라로 인한 피해가 생기자 최초의 보건 관련 법인 '1848 Public Health Act'를 제정하게 됩니다.¹⁾ 산업혁명 시기 작업장에서의 산업보건 사례들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영국에서 1770년대 굴뚝 청소부의 숯 노출로 인한 방광암의 연관성이 보고되었고, 이것은 작업으로 인한 오염물질의 노출과 암의 연관성을 처음으로 밝힌 사례가 되었습니다.²⁾ 또한 1910~20년대 미국에서 의사들이 라듐 방사능으로 인해 피부가 함몰되는 난치성 궤양 등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이 붓 끝을 모으기 위해 침을 빨라 작업하다 라듐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턱뼈가 괴사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³⁾

무 공공장소만 한정해 생각해 보면, 다수의 사람들이 각자의 경험과 목적에 따라 저마다 받아들이는 공간의 규모와 범위가 제각각입니다. 언젠가 과학 실험과 조사가 이뤄지는 공간이 과학적으로 완전무결한 공간이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학적인 기준 외에 여러 법 제도와 관련된 사람들의 목소리, 사회적인 통계수치 등이 개입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1) BBC. The later 19th century - Developments in public health and welfare - WJEC - GCSE History Revision - WJEC - BBC Bitesize. <https://www.bbc.co.uk/bitesize/guides/z9924qt/revision/4> (accessed 11 Jan 2021).

2) Waldron HA. A brief history of scrotal cancer. Br J Ind Med Published Online First: 1983. doi:10.1136/oem.40.4.390

3) Cohen DE, Kim RH. The legacy of the radium girls. JAMA Dermatology. 2017. doi:10.1001/jamadermatol.2017.2576

무진형제는 이러한 과학 실험과 조사가 이뤄지는 공간이 설정되고 분할되는 방식을 흥미롭게 지켜보며 작업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선생님께서 하고 계신 연구에 있어서 공간을 선택할 때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조사의 범위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정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저의 연구는 현재 병원에서 일하시는 청소 노동자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병원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진행중인데요. 공간을 구분할 때 연구자들의 판단에 의해 결정이 내려지지만, 법에서 기준을 정의해 놓을 경우, 연구에서도 그 기준을 참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공중보건에서의 다수 밀집 지역에 대한 다중이용시설을 정의해 놓았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을 말하며 해당되는 시설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⁴⁾

지하역사	모든 지하역사 (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
지하도상가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 이 경우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
철도역사의 대합실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항만시설 중 대합실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
도서관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박물관 및 미술관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대규모점포	모든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
영화상영관	모든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
학원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전시시설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옥내시설로 한정)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미세먼지(PM-10),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하이드,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가 측정대상 물질이며 시설별 특성에 따라 측정 대상 오염물질이 다릅니다. 노출, 독성

등을 고려하여 법적으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기준초과 시 법적으로 과태료 부과, 1년에 1회 측정), 권고기준(2년에 1회 측정)을 설정하였고 그에 따라 관리합니다. 예술 활동이 일어나는 박물관 및 미술관은 미세먼지, 이산화탄소가 측정 대상입니다.⁴⁾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의 인체 위해성을 평가할 때, 실제 제품이 사용되는 생활환경에서 해당 제품이 사용되는 장소의 공간 체적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여러 연구를 통해 제품을 사용하는 공간을 대표할 수 있는 공간(욕실/주방/거실 크기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⁵⁾

무 코로나 이후 한동안 고대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가 떠돌았습니다. 기후이변에 의해 빙하가 녹는 과정에서 새로운 위협으로 알려졌는데요. 과학계에서는 이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빙하에서 발견된 바이러스 앞에 왜 ‘고대’가 붙었는지도 의문입니다.

이 관련 연구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티벳 굴리아 지역에 15,000년 전부터 있던 빙하에서 1992, 2005년에 두 차례 샘플을 채취하여 바이러스 33종을 발견했고, 그 중 28종이 알려지지 않은 바이러스로 밝혀졌습니다. 이를 통해 수천 년 혹은 수만 년 동안 빙하에 갇혀 있던 미생물 및 바이러스가 방출될 수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2년과 2005년의 두 샘플 간에 미생물 종의 차이도 발견됐는데, 이 사실 역시 두 시기에 기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측했습니다.⁶⁾ 또한 2016년 8월에 시베리아 툰드라지역에서 탄저균에 감염된 순록의 시체가 얼어 있던 토양층 아래에 있다 방출되어 12살 소년이 사망하고 20여 명이 입원하는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⁷⁾ 이러한 바이러스는 기후와 환경이 다른 ‘고대’에 동·식물 등에 존재하던 미생물 혹은 바이러스 등이 빙하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고대’ 바이러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생물과 바이러스에 현세대 인간들이 노출된 적이 없으며, 면역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감염될 수 있다고 추측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감염시킬 수 있을지 혹은 그 감염 가능성에 관해 아직 많은 연구가 필요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무 한국의 하늘은 미세먼지로 가득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세먼지가 중국의 경제발전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그 미세먼지로 가득한 공기층에 온갖 위험한 물질들이 가득할 것이라

5) 국립환경과학원. 생활화학제품 위해성 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2018.<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175176#J1982088> (accessed 16 Jan 2021).

6) Zhong ZP, Solonenko NE, Li YF, et al. Glacier ice archives fifteen-thousand-year-old viruses. bioRxiv. 2020. doi:10.1101/2020.01.03.894675

7) BBC. Russia anthrax outbreak affects dozens in north Siberia - BBC News. 2016.<https://www.bbc.co.uk/news/world-europe-36951542> (accessed 11 Jan 2021).



미세먼지로 뒤덮인 아파트 풍경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에도 지금의 황사, 즉 토우(土雨)로 인해 많은 백성들이 고통 받았다는 기록이 있을 만큼 중국으로부터 불어오는 봄철의 황사와 먼지는 꽤 오래된 문제인데요. 그럼에도 현재 한반도의 공기층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이전 시대의 것과는 확연히 다른 것 같습니다. 우선 미세먼지가 계절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과거에 비해 발생일도 크게 늘었습니다. 오염물질의 농도도 점점 더 짙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과거의 공기층에 없었지만 현재 생명체의 건강을 위협할 만큼 심각하게 위험한 물질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꼭 있어야 하는데 오염에 노출되면서 사라진 옛 물질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거의 없습니다. 모두들 새로운 위험 물질에만 주목하고 있으니까요.

이 미세먼지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이며 가장 대두되는 환경문제입니다. 먼저 미세먼지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는 각각 직경 10 μm, 2.5μm의 입자를 말합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미세먼지(PM10, PM2.5)에 대한 대기질 가이드라인을 1987년부터 제시해왔고, 2013년에는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에서 미세먼지를 사람에게 발암이 확인된 1군 발암물질(Group 1)로 지정하였습니다.⁸⁾ 과거 한국에서는 대기오염이라는 큰 틀 안에서 대기 중 입자 혹은 총부유먼지 등의 용어로 관리되다, 1995년에 ‘미세먼지’라는 법적인 용어로 규제가 시작되었습니다.⁹⁾ ‘미세먼지’는 이전에도 존재했을 테지만 1995년에 이르러 그 개념이 막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측정 방법의 문제 등의 이유로 인해 규제가 어려웠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신경을 덜 쓰고 정책적·효과적으로 줄이지 못한 한국의 대기오염물질은 오존입니다. 오존은 무색무취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느끼기도 쉽지 않습니다. 오존은 특히 서울에서 효과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¹⁰⁾ 서울의 관측 자료에 따르면 1990년~2016년까지 오존의 농도는 꾸준히 오르고 있는 추세를 보입니다.¹¹⁾ 이러한 오존은 폐 손상, 기관지 염증, 만성 폐질환 등을 일으킵니다.¹²⁾ 과거 대기오염의 주요 물질로는 이산화황, 일산화탄소, 납이(특히 유연 휘발유 사용의 제한을 통해)있습니다. 이 물질들은 제도와 관리를 통해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8) Loomis D, Grosse Y, Lauby-Secretan B, et al. The carcinogenicity of outdoor air pollution. *Lancet Oncol* Published Online First: 2013. doi:10.1016/S1470-2045(13)70487-X

9) 임수연 오승환. 미세먼지, 그 실체와 저감 대책 방향. *과학기술정책* 2016;26:40-7.

10) Kim YP, Lee G. Trend of air quality in Seoul: Policy and science. *Aerosol Air Qual Res* Published Online First: 2018. doi:10.4209/aaqr.2018.03.0081

11) Kim J, Ghim YS, Han J-S, et al. Long-term Trend Analysis of Korean Air Quality and Its Implication to Current Air Quality Policy on Ozone and PM10. *J Korean Soc Atmos Environ* Published Online First: 2018. doi:10.5572/kosae.2018.34.1.001

12) US EPA. Health Effects of Ozone Pollution. <https://www.epa.gov/ground-level-ozone-pollution/health-effects-ozone-pollution> (accessed 11 Jan 2021).

무 최근에 신소재를 개발하면서 나오는 불필요한 물질이나 위험요소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각 재료들의 물성이나 쓰임만이 아니라 그것들로 인해 어떤 오염과 위험한 상황들이 발생하는지 사전에 인지하고 대처해야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일반인으로서 그런 정보까지 알아내기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혹 최근에 관심 갖고 계신 신소재(유해한 신소재)가 있나요. 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신소재들이 공기층이나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소 궁금했거든요.

이 최근에 이슈가 되는 유해물질은 Ultrafine particle(직경 0.1 μ m)과 미세플라스틱(Microplastic)이 있습니다. Ultrafine particle은 큰 입자들보다 폐에 침착이 잘 되어 몸 안으로 더 퍼질 것이라는 가정 하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보다 건강에 더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여겨지면서¹³⁾ 새롭게 공기 오염물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도시에서의 주 발생원은 교통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와 같이 태울 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¹⁴⁾ 3D 프린터의 사용 시 재료를 변형시키기 위해 열이 가해지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¹⁵⁾

미세플라스틱은 화장품, 의약품 등 다양한 일상생활 용품과 식품, 공기 등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인체에 입으로 호흡하거나 피부와 음식 섭취의 경로를 통해 노출될 수 있습니다. 건강 영향에 대한 연구는 더 이루어져야 하지만 만성적인 염증과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졌습니다.¹⁶⁾ 이미 2007년 연구에 따르면 최대 102,000개/m³의 미세플라스틱이 해양에서 발견되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¹⁷⁾ 과거에 수은 노출로 인해 발생한 미나마타병과 같이 해양생물들이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하고, 그 생물을 인간이 섭취하는 생물농축 과정을 통해 최상위 포식자인 인간에게 미세플라스틱 노출로 인한 여러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 과학자로서 이번 COVID-19와 관련해서 좀 더 주의 깊게 보고 있는, 혹은 일반적으로 발표된 통계수치 외에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하고 계신 데이터나 통계수치가 있나요. 같은 통계수치도 과학자의 눈으로 보면 좀 다르게 보일 것 같습니다.

이 일단 확진자와 사망자수는 거시적으로 상황을 보기 위한 중요한 자료임에 틀림없습니다.

13) World Health Organization. Review of evidence on health aspects of air pollution - REVIHAAP Project: Technical Report. 2013. doi:10.1007/BF00379640

14) Kumar P, Morawska L, Birmili W, et al. Ultrafine particles in cities. Environ. Int. 2014. doi:10.1016/j.envint.2014.01.013

15) Stephens B, Azimi P, El Orch Z, et al. Ultrafine particle emissions from desktop 3D printers. Atmos Environ Publish ed Online First: 2013. doi:10.1016/j.atmosenv.2013.06.050

16) Prata JC, da Costa JP, Lopes I, et al. Environmental exposure to microplastics: An overview on possible human health effects. Sci. Total Environ. 2020. doi:10.1016/j.scitotenv.2019.134455

17) KIMO Sweden. Small plastic particles in Coastal Swedish waters. N-Research 2007.

그대의 현재는 누군가 꿈꾸던
최고의 삶일지도 모른다.

사회적거리두기

공공장소의 사회적 거리두기 벤치

하지만 단순한 숫자로 편향된 결과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계의 기본 개념인 비율을 통해 이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COVID-19의 경우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1) 일일 혹은 총 확진자수/각 나라의 전체인구', '2) 일일 COVID-19 확진자수/일일 COVID-19 총 검사수'와 같이 비율을 보며, 지금의 상황만이 아닌 앞으로의 예측을 위해 '3) 확진자수의 경향성(일주일 혹은 1달)' 등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1) 일일 혹은 총 확진자수/각 나라의 전체인구

각 나라의 COVID-19 현황을 이해하기 위해 단순히 확진자 수만 보는 것보다 각 나라에서 인구 내 확진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이해한다면, 각 나라의 COVID-19가 얼마나 퍼져 있는지 직관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2) 일일 COVID-19 확진자수/일일 COVID-19 총 검사수

하지만 COVID-19 검사키트의 부족, 행정력 미흡, 검사 신청 건수 차이 등의 이유로 인해 각 나라와 한 나라 안에서도 시기에 따라 하루에 COVID-19의 검사량이 달라집니다. 검사수가 적어 확진자수가 적게 나온다면 상대적으로 숫자 자체는 적어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일일 COVID-19의 확산 정도는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확산 정도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COVID-19 확산 초기에는 검사키트가 부족했기 때문에 당시 확진자수는 적게 나왔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확산 정도는 훨씬 클 것이라 예상하였습니다.¹⁸⁾

3) 확진자수의 경향성 (일주일 혹은 1달)

또한 주말로 인해 검사 건수가 감소하게 되므로 전체적인 COVID-19 확산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최소 1주일 단위로 확진자수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경향성을 보면 현재 COVID-19 확산의 대응에 따른 확산 정도가 어떤 추세인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무 선생님의 이력에서 '제품의 평가'가 있었는데요. 평가를 통해 도출해낸 결과 혹은 데이터가 다수의 일반인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해지고 공유되고 있나요. 아무래도 제품 평가라고 하면 판매될 상품에 대한 적합 혹은 부적합에 대한 평가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소비자 혹은 대중들과 평가 결과를 공유할 때 가장 큰 장벽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혹 공유가 잘 안되고 있다면 어떤 식의 공유가 좋을지 알려주세요.

이 사회적으로 가장 파장이 컸던 사건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추정치로 1000명 이상의 피해자들이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사망 혹은 폐 손상 등을 겪게 되었습

니다. 이로 인해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법률인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이 제정되었습니다.¹⁹⁾

화평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화학물질을 제조하고 사용하는 업체가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직접 등록하며 ‘위해성’을 평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위해성 평가’는 화학물질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노출’과 화학물질이 지닌 ‘독성’을 고려하여 화학물질 사용으로 인해 인체에 위해성이 있는지 평가하는 일입니다. ‘독성’ 평가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동물 실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노출’ 평가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사람마다 사용하는 패턴과 환경 등을 고려해 노출량을 추정하는 것으로, 여러 실험과 통계적인 방법을 통해 많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노출’과 ‘독성’을 고려해 ‘위해성’을 평가하고, 이 위해성을 기반으로 제품을 사용 가능 여부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²⁰⁾

저는 소비자들의 제품 사용으로 인한 제품 내 인체 유해 화학물질의 노출을 평가하는 기초 실험에 참여했습니다. 예를 들어 ‘핸드크림 등 크림 제품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한 번 짤 때’ 혹은 ‘스프레이 제품을 1회 사용할 시’와 같은 상황에서 실제 사용하는 양을 실험을 통해 도출해 내고 그러한 정보들을 종합하여 ‘노출’을 평가하였습니다. ‘생활화학용품 환경노출에 따른 위해성 평가 시스템 개발’이라는 과제 수행을 통해, 생활화학제품 사용에 따른 인체 위해성 평가를 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자료는 기업이 화학물질 제조 시 특정 농도 이상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본래 용도가 아닐 경우 사용하지 못하도록 권고하는 등의 자료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위해성’ 평가 제도는 한국에서는 2010년부터 점차 시행되었지만 아직 평가 전문 인력들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먼저 전문 인력이 양성이 되어야 평가 자체도 잘 진행되며, 전문가들의 이해를 바탕으로 대중들과 관련 내용을 소통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 과학자들과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협력해서 진행하고 있는 과학 실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또한 과학자로서 공동체의 변화와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덧붙여서 과학을 공부하고 계신 입장에서 향후 이러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과 요구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 가슴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인권 단체, 학계 등이 모여 피해 보상 및 법 개정에 관해 꾸준히 요구해 왔으며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가슴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과 같은 단체를 만들어 적절한 개선과 피해 보상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피해

19)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해설서. 2015.

20)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화평법개요. <https://kreachportal.me.go.kr/potweb/sysIntrcn/chmclsRegistEvlLawSumry/chmclsRegistEvlLawSumry.do> (accessed 11 Jan 2021).

보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함부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래도 피해자들을 위한 보상을 위한 첫 단계로 ‘가습기 살균제 노출과 폐 손상과 같은 질병 및 사망의 인과관계’를 알아내고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1차 연도 과제에서는 2011년부터 환경노출 연구가 여러 연구 단체에 의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4차까지 5,569명의 피해조사 인원을 대상으로 노출 설문문을 진행하였습니다.²¹⁾ 연구라는 것은 많은 인력과 시간 및 예산이 필요한데, 피해자 관련 단체들의 노력 덕분에 정부가 관심을 갖고 피해보상을 위한 첫 번째 단계인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당시 환경노출 설문문을 위해 가정 방문을 했습니다. 피해자들을 도우려고 한 질문들로 인해 오히려 피해자분들이 당시 기억을 떠올리며 괴로워했을 뿐 아니라, 보상도 받기 어려울 거라는 심정을 밝힌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적절한 보상 방안 및 가해 기업들에 대한 법적 조치’ 등에 관심을 갖고 감시한다면 향후에 화학물질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무 최근 웹과 SNS 등을 이용해 일반인들도 각자의 독특한 언어와 문화적 기호로 다양한 데이터들을 측정해 공유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며 기존의 방식을 벗어나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채집된 데이터 값을 접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특히 공중보건 연구에서 사람의 몸과 동작, 공기의 흐름 등 숫자가 아닌 방식으로 연구된 데이터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이 IT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데이터 수집이 용이해지며 기존의 연구 방법이 아닌 수집된 데이터를 통한 여러 연구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실내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온도, 습도와 같은 실내 공기질과 관련한 인자들을 46개의 어린이집에서 Wifi와 저가형 센서를 통해 1분마다 측정해 실내 공기질을 평가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22,23)}

제가 직접 공부하는 분야는 아니지만 최근 공중보건 분야에서 질병과 관련한 대처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빅데이터 및 알고리즘을 이용한 예측 모델을 개발하려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의 검색량, 소셜미디어, 온도, 습도의 데이터를 종합해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통해 말라리아와 수두 같은 감염병을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했습니다.²⁴⁾ 또한 WHO 자료 혹은 소셜미디어 자료와 같이 생성하지 않아도 되는 자료를 통해 환경인자, 격리정보, 잠복기 등의 정보를 얻고 그 정보를 활용한 COVID-19의 대유행을 예측하는 머신러닝

21) 국립환경과학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와 노출특성에 대한 역학연구 (I). 2019.

22) 김윤지, 이세원, 반현경, et al. 어린이집에서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의 장기간 시간적인 변이를 활용한 실내환경수준 평가. 한국환경보건학회지 2017;43:267-72.

23) Guak S, Kim K, Yang W, et al. Prediction models using outdoor environmental data for real-time PM10 concentrations in daycare centers, kindergartens, and elementary schools. Build Environ Published Online First: 2021. doi:10.1016/j.buildenv.2020.107371

24) Chae S, Kwon S, Lee D. Predicting infectious disease using deep learning and big data. Int J Environ Res Public Health Published Online First: 2018. doi:10.3390/ijerph15081596



영업이 제한된 음식점의 야외 좌석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²⁵⁾

무 저희는 이번 일을 겪는 내내 앞으로 COVID-19보다 더 무서운 질병을 몰고 올 환경재난이 걱정되었습니다. 또한 사실상 방역의 사각지대에 놓인 돌봄노동자와 택배기사들이 처한 노동환경 등이 앞으로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하는 큰 사회문제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코로나와 관련해서 대중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신 사건이나 현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특히 저희가 미처 모르고 지나치고 있거나 좀 더 각성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요.

이 이번 COVID-19 위기에서 가장 피해가 많은 집단은 의료 최전선에 계신 의료종사자들입니다. 미국 전체에서, 의료종사자 중 약 11%의 감염되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²⁶⁾ 영국과 미국의 인구를 대상으로 한 COVID-19 양성 결과는 의료종사자가 일반 인구 집단보다 11.61배 많게 나타났습니다.²⁷⁾ 또한 여러 자료에서의 의료종사자 중 152,888명의 감염자와 1,413명의 사망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간호사 집단에서 38.6%로 감염률이 가장 높았고 의사 집단이 51.4%로 사망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²⁸⁾ COVID-19로 인해 우리 모두가 피해를 많이 받고 있지만, 이러한 자료를 통해 의료종사자들의 건강에 대해 관심을 더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COVID-19뿐만 아니라 다른 감염병에도 의료종사자들은 가장 노출되어 있는 집단임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미국의 연구에서 COVID-19로 인해 특히 저임금 노동자, 유색인종들이 사회경제적 피해를 많이 받았다고 언급되었습니다.²⁹⁾ 참고로 언급해주신 택배기사들과 음식배달 종사자들은 사람과의 접촉이 잦을 뿐 아니라 감염 시 전파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COVID-19에 취약합니다.

25) Shinde GR, Kalamkar AB, Mahalle PN, et al. Forecasting Models for Coronavirus Disease (COVID-19): A Survey of the State-of-the-Art. SN Comput Sci 2020;1:1-15.

26) CDC COVID-19 Response Team. Characteristics of Health Care Personnel with COVID-19 — United States, February 12–April 9, 2020. MMWR Morb Mortal Wkly Rep Published Online First: 2020. doi:10.15585/mmwr.mm6915e6

27) Nguyen LH, Drew DA, Graham MS, et al. Risk of COVID-19 among front-line health-care workers and the general community: a prospective cohort study. Lancet Public Heal Published Online First: 2020. doi:10.1016/S2468-2667(20)30164-X

28) Bandyopadhyay S, Baticulon R, Kadhum M, et al. Infection and mortality of healthcare workers worldwide from COVID-19: a scoping review. BMJ Glob Heal Published Online First: 2020. doi:10.1101/2020.06.04.20119594

29) Kerkhoff AD, Sachdev D, Mizany S, et al. Evaluation of a novel community-based COVID-19 ‘Test-to-Care’ model for low-income populations. PLoS One Published Online First: 2020. doi:10.1371/journal.pone.0239400

6 공공의 실천:
행동하느냐,
행동하는 척하느냐

인터뷰
천호균(천) · 무진형제(무)



아이들이 직접 그리고 만든 새집

무 코로나19로 인해 파주 헤이리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대표님 근황과 함께 말씀해주세요.

천 2020년 11월 11일에 ‘헤이리 판 아트 페스티벌’¹⁾을 했었죠. 헤이리가 예술인 공동체로써 천혜의 자연을 부수고 집을 지어 20년간 해온 게 뭐가 있냐는 얘기가 있었어요. ‘땅을 뒤엎고 생명을 다 몰아내 어떤 예술의 가치를 이뤄냈느냐, 과연 예술이 이렇게 해도 되느냐.’는 반성의 의미였죠. 지금 코로나19처럼 자연 파괴로 인해 생겨난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예술가들이 뭔가 해야겠다 싶어 모였습니다. 백기영 선생님이 생태 관련 전시와 작가를 소개하셨고, 고진하 시인은 ‘흔한 것이 귀한 것이다.’는 본인 시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자연의 햇빛과 바람은 다 열려 있고, 풀과 잡초는 어디서든 잘 자라죠. 그런데 자연에 흔한 것이 귀한 것임을 사람들이 너무 몰라요. 고진하 시인은 ‘흔한 것에 주목하자’며 와이프와 잡초 요리도 하세요. 그 요리가 참 맛있어요. 잡초도 귀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그리고 생명사랑의 행동에 대해 얘기했죠. 마을에 길고양이들이 많은데 밥 주는 걸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아 몰래 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헤이리 마을 이름으로 급식소 다섯 곳을 지정했어요. 헤이리 회의에서 정했기 때문에 뭐라 할 사람들도 없어요. 또 이번 ‘생명사랑 헤이리’는 전시 대신 세미나를 하며, 몇 군데 갤러리에서 풀 키우는 사람, 꽃 키우는 사람, 나무 잘 키우는 사람들 주변의 사진을 찍었어요. 카페 앞에 새집도 만들었어요. 아이들이 직접 그리고 만든 겁니다. 그걸 헤이리 이곳저곳에서 놓은 것도 이번 프로젝트였습니다. 세미나와 관련된 생명사랑을 위해 새들에게 집을 만들어 준 거죠. 구멍이 작지만 박새처럼 작은 새는 들어갑니다. 무진형제는 이 변화가 어떻게 진전될 것 같아요?

무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함께 하는 작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전으로 돌아가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데요. 얼마 전 빌게이츠가 앞으로는 코로나 이후의 환경 문제들이 정말 무섭게 온다고 경고하는 기사를 읽었습니다.²⁾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환경재앙의 도래는 동의하지만,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좀 난감합니다.

천 한 십여 년 전에 우연히 알던 분이 미생물(EM)을 제조하셨거든요. 오염된 공기와 물을 미생물로 정화하고 동물들 먹이도 한참 개발하셨죠. 그런데 그분이 한 10년쯤 지나면 숨을 못 쉬는 세상이 올 거라고 하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숨 못 쉬는 세상’의 의미를 미세먼지로 인한 공기 오염 정도로 이해했는데, 코로나로 인해 진짜 숨을 못 쉬는 세상이 왔어요. 그분이 예언을 하신 거죠. 그분이 약간 종교그룹 비슷한 곳에 계시는데, 좋은 먹거리 운동과

1) 헤이리 판 아트 페스티벌은 파주에서 신문기사 참조. <https://www.atpaju.com/news/cate/%EC%A0%95%EC%B9%98%E3%83%BB%EC%82%AC%ED%9A%8C/post/19418>

2) <https://www.bbc.com/korean/features-56082486>

미생물 연구도 해요. 마침 오늘 아침에 그 그룹에 계신 다른 분이 우리집 정수기를 청소하러 오셨어요. 정수기 안에 돌이 있는데 그게 물을 돌려요. 화학약품으로 만들어진 필터가 아니라 돌을 통해 흐르는 물을 만들죠. 정수기를 청소해 주시는 분과 차 한잔 마시며 얘기를 나누는데, 지금 우리가 바이러스를 잡기 위해 뿌리는 화학물질이 진짜 위험하답니다. 가슴기 살균제에 들어가는 화학물질처럼 굉장히 세다는 거죠. 균을 빨리 죽여야 하는 건 이해하지만, 왜 나쁜 미생물을 좋은 미생물을 이용해서 잡지 않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생태 환경 운동을 하며 그 그룹 분들을 만났는데, 경험상 일리 있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분들이 팔고 계신 EM을 희석해서 동물 먹이에 섞어주면 좋다고 해서 우리가 키우던 삼살개 주변에 뿌려주고 먹이에도 섞어 줬거든요. 그러고서 병원에 한번도 안 갔어요.

우리에게 오래 전부터 내려오던 민간요법들이 많습니다. 아픈 곳에 어떤 식물을 구해서 뜸을 뜨고 그랬잖아요. 예전엔 대마가 그러한 특효약 중 하나였죠. 그런데 그런 치료법들이 어느 순간 다 사라졌어요. 소위 과학, 의학, 대량생산, 규모, 확률을 바탕으로 제약회사와 의사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됐잖아요. 물론 그래서 사람의 생명은 연장됐지만, 자연 생태적 관점에서는 오히려 재래의 방식들을 슬슬 복원해야 할 것 같아요. 최근에 자연치유를 공부하는 곳이 꽤 많이 생겼어요. 코로나를 겪으며 그 중요성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 것 같아요. 사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김남수 선생님의 뜸 치료도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런데 아직도 공식적으로 허가가 안됐죠. 공평하지 않아요. 사실 대마의 치료 효과도 과학적으로 증명됐지만 너무 비싸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대마로 치료를 받기가 어렵죠. 요즘 같은 시대에 오히려 오래 전부터 전해져온 좋은 치료법들이 과학적으로 재현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이 나서야 하지 않을까요.

의사들과 제약 회사 종사자들 중에도 ‘과학이나, 철학이나’를 고민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모든 교육이 과학에만 의지하다 보니 확률과 효율로만 가고, 철학이 받쳐주질 못하니 자꾸 자본주의 관점에서만 생각하죠. 결국 철학이 있는 과학이 되고, 과학이 있는 철학이 되어야 하는 세상이잖아요. 예부터 내려온 자연치유에는 과학만이 아니라 여러 경험들이 있어요. 경험에 입각한 천연의 것이기에 큰 폐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것들에 인위적인 화학물질이 들어가잖아요. 천연하고 너무도 거리가 멀죠.

무 악순환이네요.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해 독한 물질로 방역하는데, 결국 우리도 함께 마시고 있으니까요. 마스크도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대비책 중 하나인데요. 결국 다 쓴 마스크가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되어 어떤 식으로든 되돌아온다고 합니다. 현재 개인이 보유할 수 있는 위생과 방역의 유일한 도구인 마스크로 인해 엄청난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고,



예술과 평화를 짓는 농부

그 폐기물이 어떤 식으로든 자연과 인간의 몸에 악영향을 끼칠 겁니다. 그럼에도 당장의 삶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마스크 폐기물을 생산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천 코로나로 거대 자본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실 백신으로 전 세계를 치료하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겠어요. 그게 어디로 가는지 잘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세대가 옛 문명, 재래의 것들, 전통의 치유법 같은 걸 복원해야 하지 않을까요. 공동체나 마을도 다 마찬가지로요.

무 대표님의 직함이 농부시잖아요. 직접 농사를 짓고 생태운동을 하시며 여러 사람들의 생각을 일구고 계신 의미에서의 농부의 개념이 아닐까 싶은데요. 대표님의 농부는 어떤 의미인가요.

천 어린 아이들에게 “너 커서 뭐 할래?”라고 묻잖아요. 저는 어릴 때 “형사”라고 얘기했거든요. 어느덧 철이 들어 ‘농부’가 이상적인 직업이 된 거죠. 제가 오랫동안 회사를 운영하면서 아트 마케팅을 했는데, 그때 예술가들을 무조건 존중하고, 종교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지나고서 ‘나는 예술을 할 수 없을까’하고 생각했는데, 농사로 예술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농사짓는 예술가, 예술 하는 농부. ‘아, 내가 예술을 하려면 농사를 지어야겠구나.’ 싶었죠. 예술 영역의 농사이자 예술가로서의 농부였습니다. 그래서 전시 방명록 같은 곳에 농부라고 적는 거죠. 농사를 짓다 보면 흙에서 생명이 나오잖아요. 아기를 낳거나 사랑하는 동물들의 출산을 돕는 경험은 자주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농사는 흙에다 뭔가 심으면 그냥 나오거든요. 그러다 지고 또 나오며 순환하죠. 어떻게 보면 자연이 다 만들어 줘요. 농사의 창조는 쉽고 동반자인 자연의 고마움도 알게 되는 거죠. 신이 창조한 자연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걸 필연적으로 느끼게 하잖아요. 생명의 기운을 받으며 소중함도 알게 됩니다. 예술이 창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도록 온갖 고민을 하는 것 이상으로, 농사는 생명을 계속 키우는 창조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신이 준 창조의 두 영역이 있다면 예술, 그리고 농사라 할 수 있죠. 저도 농사를 짓고 흙을 대하며 진정한 창조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떼떽함과 자신감이 있어서 농부라고 더 큰 소리치고요. ‘천호균의 농부는 그렇다. 신의 영역이다.’

무 저희가 여쭙고 싶었던 땅의 의미와도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땅이란 결국 생명이 나오는 곳이잖아요.

천 많은 농부들이 농사를 지으며 너무 힘들어 해요. 수확이 잘 안돼서 힘든 것도 있지만, 농부가 지은 농작물을 벌레들이 막 뜯어먹고, 동물들이 갓고 가니 억울하죠. 하지만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면 땅주인이 그들이란 걸 알 수 있어요. 농부가 농사를 짓기 전부터 그 땅에 살던 생명들이니까요. 그걸 깨달았을 때 비로소 농부의 임무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농사가 직업이 되고 효율을 향해 가다 보니 땅의 생명력이 아니라 생산력으로 가고 있죠. 인간들이 돈 좀 있다고 땅을 사서 자기 멋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땅에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있어요. 예부터 땅에 대한 시비들이 많은 이유가 이해돼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땅에 대한 최소한의 소유는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공유할 수 있는 땅이 많아야 돼요. 특히 농사는 사람의 생명과도 관련돼 있으니까요. 생명을 키우는 일이잖아요. 우리는 땅을 죽여가며 아스팔트를 깔고 있어요. 우리의 땅은 생명을 키우는 공간이자 자연의 일부잖아요. 아무리 자본주의의 시스템이라 해도 햇볕, 바람, 땅을 못 쓰게 하면 되겠어요? 흙도 마찬가지로 지어요. 어떤 인류학자가 농사를 짓고 흙을 만지며 모든 생명들이 나오는 걸 느끼는 순간, 감수성이 살아남았답니다. 감수성이 없는 사람들은 땅을 보면 크기와 가격만 생각하죠. 그런데 생명을 느낀 사람들은 흙이 창조의 근본임을 알고, 선불리 땅을 사서 얼마를 번다는 사고는 하지 않습니다.

무 핵심은 생명이네요. 그런데 이 생명이란 말이 익숙하면서도 낯설어요. 어디선가 생명이 뭐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답을 못했어요. 지식과 개념으로 빈번하게 접한 것 같은데, 막상 생명을 경험한 적이 없어서 저희의 언어로 뭐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천 한 15년 전에 헤이리에 처음 이사 왔는데, 집 둘레에 벌레가 너무 많아 모기향을 피웠어요. 그땐 벌레도 살아있는 생명이란 걸 몰랐죠. 그 소중함을 농사를 짓고 흙을 만지며 알게 됐습니다. 우리집은 주변에 논밭이 있는 민가인데 습해서 벌레가 많아요. 가을이 되면 귀뚜라미 같은 것도 엄청 많은데, 눈이 어둡고 킁킁해 모르고 밟을 때가 있어요. 그럼 죽잖아요. 너무 미안해서 제가 귀뚜라미들한테 사정을 해요. “기척 좀 내라.” 제가 제일 후회하는 게 있어요. 옛날에 제 별명이 어부였어요. 학교 다닐 때 맨날 낚시를 다니니까. 우리 댄 맨날 데모하니까 수업을 안했거든요. 그때 저는 맨날 시골 가서 낚시를 하다 보니 별명이 어부였어요. 그때 엄청 많은 고기들을 잡았죠. 이런 데서 생명력을 실감해요. 그리고 한 십 몇년 전에 어느 예술가가 전시를 하는데, 돼지와 이별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퍼포먼스가 끝난 후 제가 작가한테 그 다음에 뭐하냐고 물었더니, 돼지가 도살장으로 간다는 거예요. 도살장에 갈 돼지를 훈련시켜 전시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돼지를 샀어요. 한 6개월

살았죠. 전 살충제도 안 뿌려요. 거미줄 같은 거 치울 때도 굉장히 조심하죠. 어찌다 한 번씩 천연 스프레이를 뿌려요. 모기향 같은 걸 피우면 제 기분도 영 안 좋아요.

생명력이란 생명, 생태, 평화의 소중함을 깨닫는 겁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면, 생명의 입장에서 사고하고 판단을 하는 생태적인 삶을 살 수 있죠. 개미와 식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생태적인 삶을 살게 되고, 생명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과연 전쟁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세월호가 있을 수 있을까요. 생명운동을 하신 한살림의 장일순 선생님은 ‘네가 나다, 내가 너다’고 하셨죠. 이게 생명운동의 기본입니다. 소위 유기농도 생명의 입장에서 생활하는 게 그 시작이었죠.

무 생명운동과 평화운동 사이에 구멍이 있었습니다. 그 둘이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 몰랐거든요. 특히 파주 하면 다들 평화와 생명에 대해 많이 언급하는데요. DMZ가 대표적인 곳이고, 관련 행사와 세미나도 많은데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시다. 그런데 대표님 말씀을 듣고 보니 파주에서 평화운동이 생태운동과 함께 가야 하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생명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생명에서부터 생겨나는 자연의 멋’입니다.

천 자연의 멋은 자유스러운 멋이죠. 아름다움에 대한 시선을 확장시킵니다. 자연의 멋에 익숙하다 보면 자유로운 멋, 각자의 개성들, 소위 못생긴 것도 웬만하면 다 아름다우니 얼마나 행복해요. 세상이 다 아름다우니까. 자연을 볼 때 우리의 아름다움의 경계는 확장되니 미감을 넓히려면 자연운동을 해야죠. 보는 시선이 넓어지니까요. 우리 농산물에서 생긴 대로의 삐뚤삐뚤한 것들도 사람의 기준이죠. 생긴 대로의 기준이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멋입니다.

무 녹색 모자와 녹색 옷이 어느새 대표님만의 개성이 되었습니다. 저희 주변 분들도 대표님 패션이 굉장히 멋스럽고 독특하다고 하십니다. 유행을 좇지 않고 자연스럽게 입고 멋스럽게 산다는 게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천 회사를 운영할 때 직원들과 강조한 것이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자신있게’였습니다. 당시에 자연스러움을 우리는 가족으로 잡았어요. 너무 몰랐죠. 가족 재킷은 생명으로부터 나오니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생명들을 그렇게 처참하게 죽이는 걸 그땐 몰랐어요. 자연의 시각으로 안 본 거예요. 화학섬유가 아니니까 그걸 천연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다 ‘이건 아닙니다.’ 싶었습니다.



사단법인 평화마을'짓자' 창립대회

2020년 8월 29(토) 오전 10시~12시
광주 해미리 논밭예술학교
경기도 광주시 단원면 해미리마을길93-45

'평화마을 짓자' 창립대회 포스터

무 예전에 논밭예술학교 정금자 관장님께서 가족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말씀해주셨습니다. 이후 무진은 가족 가방을 사지 않고 있습니다.

천 껍데기의 천연 상태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 화학약품으로 떡을 바르죠. 무두질에 색도 내야 하고요. 우리가 가족 장사를 많이 해서 ‘생명력이 다한 가족을 쓰자’는 운동도 했어요. 지금 닭도 한 달을 키우고 죽여서 먹고, 동물들도 몇 달 키우다 껍질을 벗기죠. 그래서 10년에서 15년 정도 산 동물의 가족을 쓰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또한 최소한이고, 결국엔 고기를 먹고 껍질을 벗기기 위해 키우죠. 너무나 무 끄찍한데, 그게 끄찍하다는 것도 몰랐어요.

무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19도 박쥐와 천산갑, 밍크 등 야생에서 살아야 하는 동물들이 인간과 가까워지며 생긴 거라는 설도 있죠. 적당한 거리두기는 오히려 인간과 자연 사이에 필요한 것 같은데요. 너무 늦은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현 인류가 말로만 동물과의 공존을 얘기하지, 실은 그들을 대하는 방식 자체에 너무 무지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천 ‘평화마을 짓자’³⁾라고 사단법인이에요. 헤이리에서 30분 정도 올라가면 식현리라는 시골 마을이 있는데, 거기 1000평 정도의 땅에서 40~50명의 회원이 같이 농사를 짓고 있어요. 서울 사람들이 반, 파주 사람들이 반이죠. 다들 바쁘고 농사짓기도 어려운데 작년에 감자랑 고구마도 수확하고 김장도 같이 했어요. 회원들이 서울에서 오면 농사짓는 것보다 오고가는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더군다나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휴일에 오니 쉬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다들 열심히 오시죠. 거기 선생님들은 직접 농사를 경험하며 교육의 목표를 농사로 삼는 분들도 계세요. 그중 한 분은 은퇴를 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다른 대안의 교육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농사를 지으며 닭, 토끼, 염소 등도 함께 키우시죠. 결국 그분의 농사는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기 위한 농사’입니다. 이게 교육이죠. 농사가 꼭 사람만을 위해 지어야 하냐는 겁니다. 고라니가 와서 따먹어도 그 선생님은 ‘널 위해서 지은 거니까 마음대로 먹어라.’고 하시니 마음도 참 편하죠. 옛날 사람들의 농사는 가령 콩이 세알이면, ‘하나는 땅 속 벌레들이 먹고, 하나는 새가 먹고, 나머지 하나는 사람이 먹자.’는 생각이 깃들여 있었습시다. 농부의 마음이죠. 물론 그 선생님은 세 개 모두 동물에게 주기 위해 농사를 짓습니다. 교육적인 면에서 발상이 참 괜찮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간을 위한 농사를 짓고 있으니, 본인은 동물들을 위해 농사를 짓는 1인이 되겠다는 겁니다.

무 농사를 짓고 생태운동을 함께 하고 계신 단체 내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사고와 생각들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커뮤니티가 꾸준히 유지되고 지속적인 연대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파주 안에서도 이처럼 다양한 단체와 활동이 있다는 걸 잘 몰랐거든요.

천 ‘평화마을 짓자’의 테마는 ‘예술로 농사짓고 농사로 평화 짓자’입니다. 제 생각도 많이 반영되었죠. 제가 ‘농사로 예술을 짓겠다.’, ‘예술가로서의 역할을 하겠다.’고 하면, 회원들도 거기에 동의해요. 농사는 자급자족을 하고, 생명도 생각하며, 결국 평화를 짓는 겁니다. 이 걸 미래의 교육적 요소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막 경쟁하는 교육을 시켰으니, 이를 반성하는 의미에서 평화교육을 해야죠. 결국 ‘평화마을 짓자’의 농사 핵심은 ‘생명 키우기’입니다. 여기서 농사를 짓고, 어린 아이들을 교육하고, 동물들에게도 주는 거죠. 우리가 동물들한테 받을 줄만 알았지 주는 건 몰랐잖아요.

무 ‘논밭예술학교’⁴⁾에서 아이들과 농사도 짓고 요리도 하는 수업을 많이 하셨어요. 교육이 지속될 수 있는 원동력이 항상 궁금했거든요. 저희가 기억하고 있는 수업들도 굉장히 재미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심고 키운 재료들로 음식을 만들며 막걸리도 제조했죠.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평화마을 짓자’를 비롯해 대표님과 관장님께서 하고 계신 여러 활동들이 있었기에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천 작년에 안식년을 하며 쉬었어요. ‘논밭예술학교’ 프로그램이 한 10년 정도 했는데, 그때 농사지었던 아이들이 중고등학생이 됐어요. 가끔 어릴 때 교육받은 기억이 나느냐고 물으면, 기억은 분명하지 않지만 그때의 경험으로 인해 자연을 보는 시각이 새로워졌다고 답해요. 바빠 살며 공부하는 와중에도 자연에 대한 향수가 있는 것 같아요. ‘논밭예술학교’의 역할이 그래도 있구나 싶죠. 부모님들 중 상당수가 애들하고 가끔 와서 같이 얘기도 하고, 몇 분들은 ‘평화마을 짓자’의 회원이 되었습니다. 농사 때문에 인연이 끈끈하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금년에도 일단 교육 프로그램은 안 할 것 같아요. 대신 ‘평화마을 짓자’에 조금 더 집중하려고요. 제가 조그맣게 땅을 빌려서 민통선에서 대마 농사를 지어보려 하거든요. 현재 대마 농사 허가를 받기 직전이에요.

무 사실 저희 어릴 때 시골에서 할머니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대마 농사를 많이 지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옷도 해 입고 민간에서는 치료제로도 쓰였다고요. 그러다 어느 순간 불법이 돼 버렸죠. 대마가 치료 효과도 높고 암환자들에게는 진통제 이상으로 통증 완화에 좋다는데,



성장한 대마 이미지

한국에서는 규제가 심해 경작조차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천 『녹색평론』의 김종철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자본주의의 폐해로 인한 규제 중 1순위가 대마예요. 의사들은 대마의 장점을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미국의 어느 주는 한 사람당 한 종은 마음대로 심게 했데요. 대마에 종자가 많잖아요. 미국은 아무래도 기호형으로 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효과가 제일 좋데요. 대마를 심어서 팔면 3만불 정도를 번다고 해요. 미국에는 금년에 대학에서 대마초를 전공하는 과도 나온다죠.⁵⁾ 대마를 교육하는 곳이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대마가 지금의 문명을 전환할 수 있는 유일한 식물로 쓰일지도 몰라요. 플라스틱과 종이를 대체하고 연료와 의약품으로 쓰일 수 있죠. 천연 소재로 대체해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으니 문명의 전환에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기득권의 저항이 너무 세죠. 그걸 누구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하잖아요. 유엔에서도 작년 12월에 대마가 마약이 아니라고 발표했거든요.⁶⁾ 유엔의 결정에 따라 법령이 바뀌어야 합니다. 저는 대마의 장점이 잘 활용되어 주요 농작물이 되면 북한과의 관계도 좋아지리라 봅니다. 북한은 대마가 불법이 아니라 무수한 종자가 있는데요. 북한하고 남한하고 다양한 종자들을 활용해 대마 농사를 지으면 어떨까요. 개성공단에서 신발만 만들 게 아니라 대마를 활용해 농사를 지으면 남한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되죠. 북한과 협력하면 굉장히 좋은 식물 산업이 되지 않겠어요.

무 대마에 대한 우리 사회의 규제가 너무 강해 다들 마약이라는 것 외에 다른 방식의 쓰임을 상상조차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특히 지금 같은 때 대마로 어떤 대안적인 상품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천 지금 마스크를 굉장히 많이 만들잖아요. 이걸 삼베(대마) 마스크로 만들어 쓰는 거죠. 삼베는 항균이 강하니까요. 이런 걸 정부가 자신 있게 나서서 검증하고 홍보하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삼베 마스크의 효과와 항균 기능을 정부 주도로 실험해 보고 발표하면 좋겠거든요. 지금은 비공식적으로 연구하고 있죠. 가격도 공식화하고, 삼베 마스크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원단도 지원해주면 좋겠습니다. 일반 마스크의 폐해가 얼마나 커요. 그런데 삼베는 천연자원이라 버리면 자연스럽게 썩잖아요. 그런 마스크를 쓰는 대한민국으로 자랑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마스크로 세계 신화를 만들었다는데, 실은 썩지도 않은 플라스틱 덩어리로 만든 거죠. 삼베 원단은 친환경에 농사도 빨리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 백신 개발하듯이 삼베 농사를 빨리, 왕창 지어서 정부가 다 수거해 가면 얼마나 좋아요. 마스크도

5)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507093>

6)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0222164>

오래 쓸 수 있고요. 플라스틱으로 만든 마스크는 쓰는 사람도 얼마나 미안해요.

무 그럼 대마 농사 허가가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인가요?

천 허가를 받으려고 파주시 보건소 담당자와 전화로 얘기했어요. 보건소에 약품 학과가 있는데, 그쪽에서 같이 공부하면서 하자고 했어요. 파주시는 한번도 한 적이 없는데도 굉장히 협조적이죠. 저도 잘 모르니까 함께 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같이 공부하는 거 동영상으로 기록해도 되지 않겠냐고 제안했어요. 대마를 어떻게 키우고 허가 받을 때 뭐가 필요한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동영상 기록을 제안했죠. 대마 농사는 밟아야 하는 절차도 복잡하고 허가도 매우 까다로워요. 일단 토지 원부가 있어야 절차를 밟을 수 있어요. 토지 원부가 자기 것이 아니면 계약한 문서가 있어야 되고,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병원 건강검진서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대마로 무엇을 할지, 언제 심고 언제 수배할지 등에 대한 답을 제출해야 허가를 받고 대마 농사를 지을 수 있죠. 저는 현재 실험용으로 키우려 해요. 종자는 안동의 대마협회와 삼을 키우시는 분들에게 구하려 합니다. 제가 대마를 심는다니까 대마 씨를 보존하고 계신 분들이 주겠다고 하세요. 우리가 옛날 된장과 간장을 보존하듯이 심지 못해도 대마의 효능을 아는 분들이 종자를 보존하고 계세요. 제가 지금 파주에서 생명·생태·평화 운동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게 대마 농사죠. 그리고 대마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 공유해서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무 저희가 파주에서 첫 공공미술 작업을 했습니다. 2014년에 파주 곳곳을 돌며 <M의 장>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논밭예술학교’에서 전시하며 연대와 환대의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의 기억을 가지고 2019년에 <태각>을 작업했는데요. 신도시와 출판단지 등에서 작업하며 파주라는 지역의 폐쇄성을 알게 됐습니다. 파주가 평화와 생태의 간극을 메꿀 수 있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신도시 개발과 통일에 따른 이권으로 인해 삭막해진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파주에서 지속적인 생태운동과 평화운동을 하고 계신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천 지금 최대의 위기는 기후 위기죠. 파주에도 기후 위기를 어떻게 막을지 고민하는 민간단체 같은 곳이 있는데, 생태라는 큰 그림은 있지만 좀 더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문산에 도라산 고속도로를 만들면서 산을 허물고 개발하려 하죠. 산의 생명들을 다 죽이고 남북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통일보다 산의 생명들과 나무들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럼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 개발을 막는 게 지금 해야 할 일이죠. 그리고 DMZ에 사람이 못 들어가잖아요. DMZ 안팎에 대해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여러 관점에서 얘기하는데 결국 개발이에요. DMZ 안에 저도 들어가 본 적이 없지만 제 생각에 막상 들어가면 개발할 맛이 안 날 것 같은 말이에요. 천혜의 자연이 전쟁의 피해로 본의 아니게 수십 년 동안 보존됐으니 대단한 거잖아요. 이런 생각으로 DMZ 민통선 안에서 무엇을 할지 고민해보면 여러 방법이 있겠죠. 저는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나무를 키우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지금 당장 심어도 백일 만에 4~5미터 정도 자라는 대마를 심자고 해요. 대마가 이산화탄소를 제일 많이 잡으니까요. 이 파주라는 상징적인 공간에 이산화탄소와 기후위기를 잡는 최고의 작물을 심는 그런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이게 제가 파주에서 예술하는 거예요.

무 북한과 사이가 좋아지면 파주의 땅값이 오른다고 하잖아요. 사이가 나빠지면 확 내려가요. 통일도 경제적인 이점만 노리며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파주에 이미 있는 것들을 살리며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해보려는 움직임이 없죠. 답을 늘 개발에서만 찾으니까요.

천 제 상상인데요. 남쪽의 농부들이 대마에 많은 관심을 쏟아 북한의 종자가 들어오면 북쪽 사람들도 굉장히 기뻐하겠죠. 그럼 소통이 됩니다. 소통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지금은 모든 게 다 막혀 있으니까. 그래서 농사로 소통해보는 거죠. 요즘 제가 북한의 된장과 간장을 팔았더니 인기가 좋아요. 북한의 입맛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입에 맞았는데 뭐라겠어요?

무 대표님 하면 녹색당 활동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녹색당에 대한 안 좋은 소식이 들리고 있잖아요. 이런저런 사건사고 소식은 들리지만, 어떤 당론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천 녹색당은 지금 큰 혼란이죠. 우리가 촛불정국 때 더불어 민주당에 많은 기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작년 총선 때 위성정당 얘기가 나왔고, 더불어 민주당에서 소수정당을 위해 몇 프로 이상의 의석수를 줘야 한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들었는데, 결국 자유한국당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소수당이 모인 더 민주 위성정당에 녹색당의 참여여부를 놓고 굉장한 혼란이 있었어요. 녹색당이 원래 생각하는 가치를 기반으로 정계에 입문하는 게 아니라, 국회에 진출하는 게 우선이라는 문제로 시비를 가리다 보니 풍비박살이 났죠. 그때 7년 전

부터 있던 옛 당원들이 많이 탈당했어요. 한 천명 이상 탈당했죠. 그 와중에 녹색당이란 이름을 떼고 가야하느냐 마느냐는 혼란도 있어, 혁신을 한다 해도 당분간 혼란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정치는 잘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녹색의 가치가 다시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무 처음 더 민주에서 비례대표제 의석을 소수정당에게 준다고 했을 때 드디어 대한민국 정치도 다당제로 가는구나 싶었어요. 소수정당이 함께 하면 여당도 좋은 정책을 펼 줄 알았죠. 그런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크고 작은 개혁이 모두 흐지부지 되고 여야의 눈치싸움만 남은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기후위기와 원전문제 등 녹색당만이 다룰 수 있는 의제나 담론들이 넘쳐나는데 너무 조용하니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작년 총선 때 대표님께서 녹색당 비례대표로 출마하신다고 해서 기대했거든요. 물론 그만두셔서 아쉬웠고요.

천 금방 그만뒀어요. 녹색당의 이름을 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무 네. 그런 것 같았어요. 사실 작년에 녹색평론의 김종철 선생님도 돌아가시고, 녹색당도 그렇게 되면서 당장 시급한 기후이변과 환경문제 등을 앞으로 어느 누가 나서서 공론화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천 녹색당이 선거법 개정 이후 비례대표 출마 문제로 현장에 있던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당 중앙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니 잘 모르잖아요. 그냥 모두 훌륭하고 고생했으니 잘 되겠다 싶었죠. 그런데 결국 당원들의 탈당으로 이어진 겁니다. 저도 후보로 한번 들어가 보니 피터지는 거예요. 저는 예술하러 들어갔는데, 그게 아니니까 빨리 나가는 게 낫겠다 싶었죠. 아름답지 못한 추억을 가졌어요.

무 대표님께서 녹색당 활동을 하게 되신 계기가 있을까요. 활동하시며 달라진 점은요?

천 처음에 녹색당이 한국에 있다는 걸 알고 바로 가입했죠. 사실 그때까지 난 정치에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 녹색당 창당하고 6개월~1년 후에 가입한 것 같아요. 녹색당은 제가 좋아하는 요셉 보이스를 통해서 알았죠. 예술가가 정치까지 하는 게 감동이었어요. 그 사람의 예술은 녹색이니까요. 그래서 무조건 들었죠. 들고 나서 너무 좋으니까 녹색의 가치를 멋으로 삼아 녹색 모자도 쓰고 다녔고, 무얼 하든 항상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심지어

녹색당 활동을 하다 어느 큰 모임에 가게 됐는데, 거기서 정치색을 이유로 녹색 모자를 벗으라서 안 들어간 적도 있어요. 재미있던 건 퀴어 축제에 갔을 때였죠. 경비 서는 경찰들이 노인들은 들어오는 데가 아니래요. 젊은 사람들만 있는 곳이라니 참 희안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녹색당은 퀴어를 존중하니 들어와도 된다고 해요. 그렇게 녹색당원이라 대우받은 적도 있어요. 그런 다양한 경험이 있죠.

무 한 2년 전쯤에 대표님께서 화장실을 자연정화가 되도록 만들고 싶다고 하셨죠. 모든 노폐물이 바다로 흘러가 또 다른 폐해를 불러온다고요. 당시만 해도 환경문제와 화장실을 잘 연결하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자꾸 기억에 남아요. 그때 언급하셨던 자연정화 화장실은 어떻게 됐나요.

천 그걸 하고 싶었죠. 실제 만드는 분들도 많고요. 아파트를 지을 때 꽤 과학적으로 짓잖아요. 그럼에도 화장실의 모든 노폐물을 바다에 버리는 건 너무 낭비예요. 그걸 흙으로 돌려보내서 과학기술을 활용해 충분히 순환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얼마 전 영광의 평화마을에 갔는데 화장실이 진짜 멋있었어요. 『야생초 편지』를 쓰신 황대권 선생님께서 평화마을을 지으셨는데, 이번에 우리 ‘대마자유연대’가 거기서 1박 2일을 지내며 발표를 했어요. 그때 황대권 선생님이 화장실을 자랑하시며 꼭 들르라고 하셨어요. 재래식 화장실인데 약간 높은 곳에 지었어요. 주변의 자연을 다 볼 수 있는 전망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한번 화장실에 가면 한참 있게 돼요. 경치가 너무 좋으니까요. 절의 해우소보다 더 넓고, 쾌적하고, 멋지게 만들었죠. 화장실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무 저희가 몇 년 전에 나눔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헤이리 마을 주민 분들께서 음식과 선물을 가져와 서로 나누는 모습을 보며 끈끈한 공동체의 연대감 같은 걸 느꼈습니다. 같은 파주임에도 저희가 살고 있는 신도시는 이웃과의 교류조차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대표님께서 공동체나 연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꼭 여쭙고 싶습니다.

천 ‘문화예술 나눔’⁷⁾이 생긴 지 한 10년 조금 더 된 것 같아요. 당시 헤이리의 전반적인 기운이 너무 예술로만 가다 보니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 상업적으로 가야 된다는 큰 움직임이 있었어요. 원래 헤이리에 집을 짓기 위한 조건이 예술 콘텐츠가 하나씩 있어야 하는 건데,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져 집 짓는 규제도 좀 느슨해졌어요. 사람 사는 사회가 그렇게 가는 순리라면 어쩔 수 없이 따라야죠. 그럼에도 우리 뜻에 맞는 몇 사람끼리 모여 예술을 이해



헤이리에술마을 썩크그린카페 앞 닭장

하고 이야기하는 공동체 정신을 이어받아 예술과 문화로 나눔을 하자고 했어요. 그때 생긴 단체예요. 나눔 하는 정신으로 공동체를 같이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경험해요.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공동체에 대한 생각이 모두 다 달라서 분열 되고 몇 사람들만 남아요. 결국 공동체 정신이 남아 있어도 실천하는 사람이 없으면 소용없죠. 남아서 실천하는 사람들이 중요해요. 예를 들면 ‘평화마을 짓자’도 있고, 제가 서울에서 아직까지 길게 활동하고 있는 단체는 ‘도시를 흙으로 보호하자’, ‘도시에서 농사짓자’고 하는데, 이런 곳들은 공동체 정신이 살아있어서 사람들이 활동하는 거예요. 공동체는 자기들이 한 약속을 꾸준히 실천하고 실험하며 즐거워야 하고 그런 기운이 옆에 퍼져야 합니다. ‘문화 예술 나눔’에는 함께 하는 예술가들이 가끔 전시도 하고 교환 레지던시도 하며 살아있는 공동체란 생각이 들죠. 녹색당도 어느 정당보다도 녹색의 가치를 행동하는 사람들의 세를 규합하고 그래서 정치를 변혁시키자는 큰 뜻이 있어요. 행동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행동하는 사람들이 작년 같은 경우 큰 딜레마를 겪었어요. ‘과연 행동하는 사람이나, 행동하는 척 하는 사람이나’인거죠.



공유공간 '너머'의 모두의 지갑

★ 논밭예술학교 정금자 관장님께서 소개하신 코로나 시대의 공공영역: 전라남도 순천에 ‘공간 너머’⁸⁾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코로나19 이후에 ‘모두의 서랍’을 운영하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 여러 사람이 공간에 모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공간에 안 쓰는 서랍과 냉장고 같은 걸 놓았어요. 그리고 음식이 남으면 그곳 냉장고에 넣어서 아무나 와서 먹으라고 하고, 빈 서랍에는 본인은 안 써도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해 보이는 것들을 넣어야죠.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함께 모이지 못해도 각자 공간에 들어서 서로 물건도 나눠 쓰고 음식도 나눠 먹고 있어요. 나중에는 돈통도 만들었데요. 처음에는 돈 통이 쓰레기를 넣는 곳인 줄 알고 쓰레기통처럼 쓰이기도 했데요. 그런데 어느 날은 한 청소년이 ‘내가 옷을 꼭 사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를 가지고 가겠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돈을 가져다 쓴 적도 있데요. 그래도 꾸준히 그 공간이 유지된데요. 돈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돈통도 꾸준히 유지되고 있데요. 그걸 운영하신 분이 긴 글을 올렸는데 어려울 때는 이런 식으로 만나야 되나 싶어요. 그래서 공유공간 ‘너머’란 곳이 요즘 같은 땐 굉장히 특별한 공간이죠.

- 심소미 독립큐레이터로 도시공간을 배회하며 글을 쓰고 전시를 기획한다. 서울과 경기 안팎을 헤매다 얼마 전부터 파리 주변부에서 표류 중이다. 도시변형의 과정에서 생겨난 표식을 리서치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시각언어와의 관계 속에서 재구성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
- 김성훈 사람과 공간의 연결을 통해 마을과 도시를 더 아름답게 만드는 창작집단 ‘작은도시 대장간’의 대표. 도시재생 콘텐츠를 만들며, 함께 만들어 가는 마을과 도시를 꿈꾸고 있다.
- 이영주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주로 소장품을 조사·연구하고, 재분류하고, 재구성하는 일을 한다. 미술관에서 가지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영역들 - 소장품 수집과 연구, 미술관 정책 등 - 에 관심을 둔다. 19세기 영국 사우스 켄싱턴 미술관과 관련한 박사 논문을 쓰고 있다.
- 김성일 지역연구가. 건축과 도시에 축적된 시간의 의미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지역 단위의 기록·수집·조사 등의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사)지음건축도시연구소 소속 / (주)어반트리건축사사무소 근무
- 이세원 산업현장 혹은 생활환경에서의 환경오염 물질 노출과 그로 인한 질병을 연구한다. 주로 미세먼지 등의 실내공기질과 청소제품 등의 제품 내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에 관심을 두고 있다. PhD Candidate in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Health(산업/환경보건 박사과정), The University of Manchester.
- 천호균 예술로 농사짓고 농사로 평화짓는 농부. ‘(주)쌈지농부’의 대장농부로 헤이리 예술마을에서 ‘논밭예술학교’의 텃밭을 가꾸고, ‘농부로부터’라는 친환경 농산물 판매점을 만들었다. 현재 ‘평화마을 짓자’의 이사장으로 쌈지농부 가족들과 비건 카페 ‘싱크 그린’을 운영하고 있다.

